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ssic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전 중앙일보 보스톤지사장 경찰 수사중

페리카나 본사와 상관없이 보스톤 가맹점 사업진행
3만5천불 넘겨받고 안 돌려줘 경찰 사기혐의 법원에 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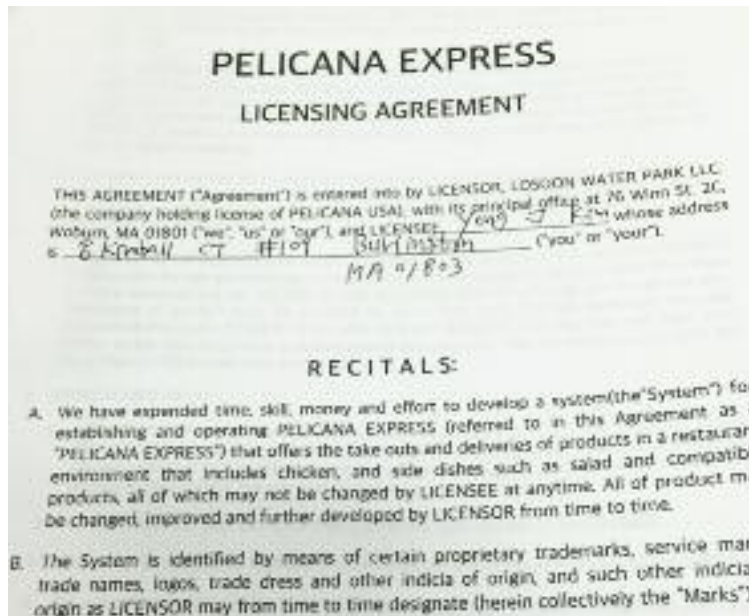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전 중앙일보 보스톤지사 박모 사장이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박 사장은 페리카나 가맹점 허가를 내주겠다고 한 한인으로부터 3만5천불을 건네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다.

우번 경찰서 마이클 웰스 형사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진행중인 수사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박 사장을 사기 혐의로 이미 법원에 송치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웰스 형사는 “언제 법원 심리를 받을 것인지 모르겠다. 다만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영중(57)씨는 2015년 3월

17일, 당시 중앙일보 보스톤지사 박모 사장이 운영하는 Losoon Water Park LLC(이하 LWP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LWP사는 페리카나 미국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김씨는 페리카나 익스프레스 허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선돈금 3만5천불의 체크를 지불했다.

김 씨는 중앙일보 보스톤판에 게재된 페리카나 가맹점 모집 광고를 통해 사업설명회를 들은 후 계약을 생각하게 됐다. 김 씨는 계약에 앞선 2014년 12월 말에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올해로 미국생활 32년째며 과거 월덤에서 한식 레스토랑 사업으로 큰 돈을 만졌던 김 씨였지만 페리카나 테이크아웃 전문점인 익스프레스를 8만불에 시작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좌)김영중씨가 박사장과 2015년 3월 17일 서명한 계약서 사본. 계약서 서두에 페리카나 미국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피해자 김영중씨, 에버렛 소재 시티 주유소 한 곳에서 에버렛프라이드치킨 집을 운영중이다. 2015년 9월 계약해 3개월간 렌트비만 들었으며 지난 1월 13일부터 치킨점 운영을 시작했다. 경험도 부족하고 브랜드도 없으며 홍보도 안돼 첫째주 교인들의 도움으로 1천 1백불, 둘째주 610불, 셋째주 710불을 팔았다. 하루에 10불을 판 적도 있다고 한다

솔깃했다. 김 씨와 함께 설명회에 참석했던 2인 중의 한명인 한인 주씨는 “2015년 중반까지 10-15개 보스톤 지역 가맹점을 설립할 것이라는 박모 사장의 말이 허황되었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주 씨는 “설립된 가맹점 형태 중 가장 아래 급이었던 것이 8만불이었다”고 김 씨의 말을 확인했다.

페리카나 가맹점 계약 후 김 씨는 가게장소 물색에 나섰다. 작년 9월 김 씨는 마침내 에버렛 소재 주유소 내에 있는 피자 가게를 구입하게 됐다.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업
만행사소송
이혼



성 기 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jlaw.com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From \$799

ONLY 1 STOP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보상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가장 낮은 가격에 항공권 예약합니다.
여행객 4명 이상 예약 시에는 항공권에 호텔 숙박권도 포함합니다.
출발일 7일 전 예약 시에는 항공권에 호텔 숙박권도 포함합니다.
항공권 요금을 환불하면, 항공사, 항공사별 환불비도 포함됩니다.

예약문의: 전화 / 팩스 / 이메일 / 홈페이지
예약문의: 800-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예약문의: www.jace-travel.com / 978-451-1111 / 978-451-1111
예약문의: 1-877-451-1111 / 978-451-1111

항공권 예약 전문
JACE TRAVEL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로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Jung H. Oh,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665.1537
juno@selamilaw.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 2면에 이어서

는 심리를 갖거나 또는 자체 판단으로 이 사건을 정식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 하게 된다.

17일 박 사장의 부인 김 씨는 본지에 전화를 걸어 “사건이 아직 법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닌 만큼 보도하지 말라. 보도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 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편 중앙일보는 지난해 11월 계 갑작스레 보스턴판 발행을 중단했다. 뉴욕 중앙일보 권인경 대변인은 중앙일보 보스턴판 중단에 대해 “뉴욕 중앙일보 본사의 경영진의 회의에 따라 뉴욕 본사측에서 계약을 취소한 것” 이라고 말 했지만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뉴욕 중앙일보 측은 보스턴판을 운영했던 박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 이라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라고 답했다. 뉴욕 페리카나 지점 이 윤수사장은 “중앙일보 측이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힌바 있다.

피해자 김 씨는 “보스턴지사 박 사장이 ‘내가 (보스턴) 중앙일보 사장인 데 왜 못믿느냐. 중앙일보 사장인데 저 나쁜 사람 아니다.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라’ 해 믿고 수표를 줬다” 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중앙일보의 계약 단절 이후 아시안타임스란 주간지를 발행하고 있다. 박 사장이 김씨와 계약에 사용했던 Losoon Water Park LLC는 2015년 6월 30일 법원명령에 따라 해산돼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좌)김영중씨가 발행한 체크와 (우)중앙일보 보스턴판 가맹점 모집 광고

보스턴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턴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원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백은세 Eun se Baik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 Um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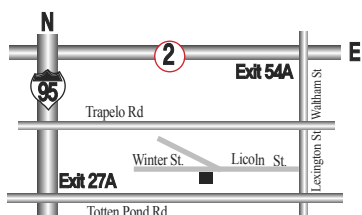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Spring 2016 Schedule

Class	Time	
SAT II MATH II C	Start	3/26/16 – 5/28/16
	Saturdays	9:00 AM – 11:00 AM
SAT II / AP Chemistry	Start	3/14/16 – 5/28/16
	Saturdays	11:30 AM – 1:30 PM
SAT II / AP Biology	Start	3/12/16 – 5/28/16
	Saturdays	2:00 PM – 4:00 PM
SAT II MATH I C	Start	3/26/16 – 5/28/16
	Saturdays	4:30 PM – 6:30 PM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2017년 8월 SAT 시행, 수험생에 영향 줄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백은세 기자 = 칼리지보드(College Board)가 2017년부터 8월에 SAT를 추가로 치를 수 있게 하고 대신 2018년 1월 시험을 폐지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전망이다.

2월 초 발표한 시험날짜 및 마감(Test Dates and Deadlines)에 따르면, 칼리지보드는 2017년부터 8월에 SAT를 추가한 반면, 2018년부터 1월 시험은 폐지했다. 올해 3월부터 SAT는 새로운 시험형식으로 변경되며 시험일자도 바뀌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신규 SAT는 읽기 영역의 지문이 더 길어지고 어려워진다. 수학 영역의 문제를 또한 지문이 길어진다. 이에 일부 교육전문가들은 영문 읽기에 익숙치 않은 학생이나 영어가 모국어 아닌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플란(Kaplan Test Prep)의 대입준비프로그램 리와이스(Lee Weiss) 부대표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과거엔 영어가 모국어 아닌 학생들은 수학 영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되었다. 하지만 새 시험에서는 읽기, 수학 양쪽의 지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고 전했다.



2017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8월 시험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장단점을 동시에 주게 된다. 여름 시험의 추가로 졸업반 학생들은 수시(early) 전형 마감 전에 SAT 시험을 한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여름 방학동안 학교 공부 부담 없이 SAT공부에 매진하여 8월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1월 시험의 폐지로 인해 필요한 SAT 점수를 각 대학의 정시(regular) 전형 마감에 맞추어 발송하는데 작년과 같은 겨울 폭설로 인한 차질이 생길 위험도 줄어든다.

여름 SAT, 8월 시험이 가중시킬 빈익빈 부익부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애틀란틱 먼슬리(Atlantic Monthly)는 현장 교육자를 인터뷰해 이를 지적했다. 이 월간지의 기사에 따르면 뉴튼 사우스(Newton South)의 입시지도 دان루빈(Dan Rubin) 감독은 “여름 방학동안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부유층 학생들과 여유가 없어 허둥지둥덜 학생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 말했다.

esbaik@bostonkorea.com

NEWSIN PROGRESS

뉴스프로 중·고등학생 국제 영문번역 경시대회

뉴스프로 창간 2주년 기념 제2회 중·고등학생 국제 영문번역 경시대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에 소재한 비영리 외신전문 언론기관인 뉴스프로가 창간 2주년 기념행사로 중, 고등학생 국제 영문번역 경시대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보스톤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국인 학생들이면 참가가 가능하다. 뉴스프로는 청소년들이 직접 외신을 찾아 읽고 국제뉴스에 관심을 가지게 하며 독자들의 영어 학습도 돕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올해로 두번째다.

뉴스프로는 출품작 중에서 최우수작과 우수작 각각 한 편을 선정해서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최우수작은 뉴스프로에 올려 소개할 계획이다. 참가 마감은 22일

오후 2시에 마감한다. 경시대회는 2월 27일 오후 7시부터 28일 오후 2시까지 치러진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 학생들은 <https://the-newspro.org>에 접속해 참가신청하면 된다.

뉴스프로는 2014년 3월 3일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 교수와의 인터뷰로 첫 뉴스를 내며 창간했다. 뉴스프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어 등의 외국어 기사들을 번역해 정치, 사회, 경제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보는 외국의 시각을 한글로 독자들에게 전달해왔다. 지난해 산케이 신문 한국지부장의 ‘대통령의 7시간’을 번역해 화제가 된 언론사이기도 하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뉴잉글랜드 한인 보이с카우트 창단 추진

“한인 2세 청소년들 리더십으로 세우립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햄프셔 자연을 바탕으로 한미 청소년 캠프(KAYP, NH 소재)를 운영해 왔던 진태원 피닉스 컨설팅 대표가 본격적으로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 보이с카우트 창단에 나섰다.

콘코드(Concord, NH)에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진태원 대표는 늘 한인 2세들의 한국학교 이후의 교육에 관심을 가져왔다. 교육 연장의 한 방편으로 생각해 냈던 것이 청소년 여름캠프였다. 2010년부터 6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캠프를 운영해 오다보니 무언가 모자란 것을 느꼈다.

진대표는 “여름 캠프를 오래 해오다 보니, 아이들에게 야외 생활을 즐기는 것 만으로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미국과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청소년 운동의 하나인 보이с카우트였다.

과거 스카우트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에 관한 책임도 배우게 되었다는 진대표는 “최소한 5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있어야 창단”이 가능하다고 하며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다음은 진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뉴잉글랜드 한인 보이с카우트는 어떤 것인가?

보이с카우 활동은 대(Troop)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미국 보이с카우트 연맹에 등록되고 감독을 받는 단체이다. 11세 (5학년을 끝마치거나) 부터 18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활동을 할 수 있다.

뉴잉글랜드 한인 보이с카우트는 한인 2세들을 이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지도자로 양성시키는 큰 역할을 하고자 한다. 다양한 보이с카우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진태원 대표

트 활동을 통해 지도자의 인성과 자질(Character)을 갖추나갈 수 있다. 뉴잉글랜드 한인 보이с카우트는 미국 보이с카우트 지역 협의회에 소속되어 협의회 감독을 받게 된다.

이 지역에 한인 보이с카우트(Troop) 창립이 필요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이с카우트 운동은 처음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지난 100년 동안 미국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는 조직의 하나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소속된 공동체의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연마시키고 있다. 스카우트의 기본은 자질 형성(Character Building), 시민의식 훈련(Citizenship Training), 그리고 체력(Fitness)이다.

인터넷에서 이글 스카우트(Eagle Scout)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보이с카우트의 꽃인 이글 스카우트 출신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에 한인 청소년들이 참여할 지역 활동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다수 청소년들은 교회나 성당의 청소년 그룹(youth group) 활동을 주로 한다. 교회나 성당과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 청소년들은 학교 활동 외 다른 단체 활동을 경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한인들에게 한인 보이с카우트는 지도자의 자질 형성을 위한 단체활동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이с카우트 출신이라 들었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나?

청소년 시절 내가 참여했던 보이с카우트 활동은 나의 삶에 너무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확신한다.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것은 나에게 롤모델이 되어 주신 신승갑, 김문각 대장님들과의 만남이었다.

학교 밖에서 많은 스카우트 형제들과 지도자 분들과의 다양한 관계가 나만이 아닌 공동체의 중요성에 빨리 눈을 뜨게 해 주었다. 1974년 처음으로 여러 나라의 보이с카우트 친구들과 1주일 활동이 세계속의 하나인 나를 발견하게 해주었고, 스스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는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 주었다.

어떤 활동들이 계획돼 있나?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주말 모임을 갖는다. 장차 조직이 활성화 되어 틀이 잡히면, 다른 주(State)에도 한인 청소년 보이с카우트(Troop)을 만들 것이다. 여름과 겨울에는 이 지역의 모든 보이с카우트들이 참가하는 캠프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미국 전역에서 실시 되는 수많은 보이с카우트 활동 및 행사에 참석해 시야를 넓히는 청소년으로 커갈 수 있다. 기능장 제도(Merit Badges)와 진급 제도를 통해 책임지는 젊은이로 키워 나갈 수 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회비는 일년회비 \$25를 미보이с카우트



진태원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Phoenix KAYP 여름 캠프 모습

(Boy Scout of America)에 내는 것 외에 자신들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자신들이 마련해야 한다. 저와 다른 성인 지도자들도 각자의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며 활동을 하고 있다.

요즘은 글로벌화에 맞는 리더십을 키운다는데...

4년 후에는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세계잼 보리(http://2019wsj.org)가 개최된다. 이 대회는 캐나다와 멕시코와 함께 3개국이 공동 주최하며,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행사를 경험하게 해 주고 싶다.

Boy Scout of America

(http://www.scouting.org)

한인사회에 하고 싶은 말은?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 스카우팅을 하셨던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Scout Master: Taewon Jin (진태원)

장소: 10 Brace Ave, Hooksett NH 03106 -

한미 청소년 캠프 본부 (KAYP)

603-205-6679, captain@kayp.org

hsb@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보스톤 총영사들 각국 홍보전 치열, 한국은 ?

한국과 사업을 해야 할 이유 홍보나선 엄 총영사 보스톤 국제경영포럼에 11개국 총영사 자국 홍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잉글랜드국제경영연합(GBANE, 지베인)이 주최하는 포럼에서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일본 등 11개국 총영사들이 각국 사업홍보에 열띤 경쟁을 벌였다.

17일 수요일 보스톤 다운타운 소재 모건 루리스 로펌에서 열린 지베인(GBANE)국제경영포럼에는 보스톤 지역에 주재하는 각종 공관 관계자, 그리고 세계 각국과 비즈니스 교류협력을 원하는 보스톤 지역 기업들이 참여해 각국의 사업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눴다.

각국을 홍보하는 전시 부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 등이 주요 이벤트였지만 이날 하이라이트는 각국 총영사들이 3분동안 보스톤 지역 기업들을 각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벌이는 경영 홍보 '배틀' 이었다.

매사추세츠주 사업개발부 남 팸(베트남 계) 차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홍보전에는 멕시코,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브라질, 한국, 이스라엘, 일본, 스위스, 독일 등 11개국 총영사들이 참여해 다양한 방법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이날 홍보순서 7번째로 나선 엄성준 총영사는 “아직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미국 사업가들이 있다”며 한국이 먼 나라가 아닌 가까운 좋은 이웃이란 점을 설득에 나섰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며 한국은 가장 좋은 사업 환경을 가진 국가, 가장 혁신적인 국가 등 각종 지표를 제시했다.

엄총영사는 “연결, 매칭, 결합 그리고 도전을 통해 한국과 보스톤이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엄총영사는 “미국내에서 한국 유학생들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유학생들의 지식과 기술을 보스톤과 한국의 창업기업에 보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설 마지막 부분에는 사이의 강남스타일을 틀어 청중들의 환호를 이끌어 냈다. 엄총영사는 사이가 바로 보스톤 대학에서 공부한 유학생이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남 팸 차관은 엄총영사를 소개하면서 “드라마는 역시 한국 드라마”라고 밝혀 한국 드라마의 열풍을 짐작케 했다.

이날 총영사들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청중을 사로잡기도 했다. 프랑스의 총영사의 경우 프랑스 발음과 유머를 섞은 홍보 비디오로 가장 많은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이스라엘 총영사는 좌측 단상을 떠나 무대 중간에서 “이스라엘의 관심은 돈을 버는데 있지 않고 파트너십을 갖는 것을 원한다. 21세기 파트너십은 다르다”며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툼 히메노 일본 총영사는 특유의 유머로 일본을 소개하고 유일하게 일본 영사들과 참가한 기업인들을 청중에게 소개했다. 특히 자신의 이름이 He may Know라며 그는 일본식 가운을 걸치고 자신을 찾아 질문하라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한편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다트머스 공공정책 센터의 마이크 굿맨 교수는 “매사추세츠는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 1.3%의 성장을 하는 등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8년 대공황 이래 경제는 아주 느리게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회복의 여파는 보스톤을 중심으로 20마일 내외 정도만 영향을 미치며 이외 지역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굿맨교수는 “2016년 국제 경기전망이 석유값 하락, 중국경제 불안, ISIS 등으로 여전히 좋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editor@bostonkorea.com



17일 지베인(GBANE) 포럼에 참여한 총영사들. 왼쪽부터 엄성준 총영사, 톼 히메노 일본총영사, 데이비드 알워드 캐나다 총영사, 피노누알라 퀴렌 아일랜드 총영사, 수지 키친스 영국 총영사, 그레시에아 고메즈 멕시코 총영사, 벨라리 프리랜드 프랑스 총영사, 헬무트 란데스 독일 총영사, 펠릭스 모네스터 스위스 총영사, 남 팸 경제개발 차관, 예후다 아코브 이스라엘 총영사



엄성준 총영사가 한국을 홍보하고 있다.



각국 총영사들이 홍보 준비를 위해 무대에 올라 있는 모습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건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 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빙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she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세금 보고, 건강보험 증명서류 꼭 챙겨야

연방정부의 1095-A,B,C, 주정부 세금보고는 1099HC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1095-A, 1095-B 또는 1095-C이며 매사추세츠 주정부 세금에는 1099-HC를 첨부해야 한다.

IRS에 따르면 1095-A는 건강보험 거래소에서 텀스헬스플랜, 네이버후드헬스플랜 등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사람들이 받게 된다. 1095-B는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블루실드, 블루크로스 등을 통해 개인보험에 가입한 납세자들에게 발송된다. 1095-C는 50명 이상 직원을 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받게 된다. 1099-HC는 매사추세츠 주에 있으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모두 받게 된다.

1095-A, B, C는 모든 가족 구성원 개개인, 즉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발행된다. 1099-HC는 매사추세츠 거주자이며 18세 이상인 가족 구성원들에게만 발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1095-B, C와 1099-HC는 1월 31일까지 각 보험회사로부터 각 개인들과 가정에 발송 편지를 통해 우송되었다. 1095-A는 2월 중순까지 각 주정부 보험거래소로부터 서류를 받게 된다. 이 서류들은 동시에 연방국세청(IRS), 주세청(Mass DOR)에도 발송된다. 그러나 일부 주의 경우 2월, 3월에도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이들 서류를 아직도 받지 못한 한인들은 반드시 가입 보험사에 연락해 이 서류를 받아야 한다. 1095-A의 경우에는 매사추세츠의 경우 헬스커넥터 웹사이트에 로



연방정부의 1095-A, B, C



주정부 세금보고용 1099HC

그인 한 후 메뉴 중 세금보고양식을 선택해 1095-A를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러나 1095-B, C는 해당보험사와 접촉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납세자들은 이들 서류를 받아서 W-2 등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1095-A, B나 1095-C는 이미 국세청에 발송됐기 때문에 세금보고 서류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다른 세금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하기만 하면 된다.

세금보고 서류인 1040 양식을 작성할 때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고 표시하면 된다.

hsb@bostonkorea.com

한미정치력신장연대 한국지사 한국서 설날 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미정치력신장연대 한국지사는 한국 구정을 맞이하여 13일(한국시간) 2016 이노베이션 카페 행사를 개최했다.

보스톤 출신 김한나 자문변호사의 진행으로 지난 광화문 소재 주상복합 오피스텔인 '경희궁의 아침'에서 열린 이날 이노베이션 카페에는 대한민국 국가초청 장학생으로 국내 MBA대학원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학생들 글로벌 기업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차세대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한미정치력신장연대 김성혁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차세대 젊은이들은 한미 양국의 정치,경제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우호적이며 발전

적 미래에 대한 토론했으며 한미 양국의 차세대들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책임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양국의 정치력신장을 위해 한국에서 총선에 선거권이 있는 차세대들은 선거독려와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를 통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은 미국 대선에 관한 열띤 토론 끝에 버니 샌더스 의원을 지지하고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명절을 기해 개최된 MBC 외국인 씨름 대회에서는 미국 차세대 대표들이 참가하여 개인전 준우승의 영예를 안고 상패와 상금을 수여 받았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국발 국제선 3월에도 유류 할증료 제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올해 3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도 '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연속이며 이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제도가 고유가 때문에 전 노선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최장 기간 0원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2009년 3월~8월까지 6개월간 0원이었던 것이 최장 기록이었다.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면제한다.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월16일~2월15일 싱가포르 항

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37.85달러, 갤런당 90.11센트로 150센트를 한참 밑돌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에 관계 없이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다만 한국에서 출발해 왕복하는 국적 항공편 유류할증료만 0원이고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권이라도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할증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LA를 비롯한 미국에서 구매한 한국행 왕복 항공권에는 여전히 160달러의 유류 할증료가 부과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기자 모집

보스톤코리아에서 기사를 씁니다.
초기심에 강고, 정실한 사재를 갖고 있으면 환영합니다.
작은 커뮤니티지만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신을 믿는 그런 기자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보스톤 **코리아**에서
풀타임, 파트타임
취재 전문기자를
찾습니다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
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제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움드릴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들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H마트의 수산제품 자회사인 캡틴블루에서 파견된 전문가가 태평양산 참치를 직접 해체했다

H마트 벌링턴점, 참치 해체 이벤트 선보여

주중 대학생 고객 상대로 5% 추가할인 이벤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김시훈 기자 = H마트 벌링턴점은 지난 12일에서 14일까지 내방한 고객들을 상대로 참치 해체 이벤트를 선보였다.

H마트의 수산제품 자회사인 캡틴 블루에서 파견된 전문가가 12일에는 130파운드 그리고 13일, 14일에는 150 파운드의 태평양산 참치를 직접해체했다. 많은 H마트 고객들은 이 해체 광경을 보며 카메라와 비디오에 담는 데 여념이 없었다.

최근, H마트의 수산 코너 홍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이벤트는 작년 12월, 제수산 광어를 비롯한 활어를

즉석에서 횡감으로 제공한 이래 두 번 째다. 해체된 참치는 등살 \$39.99/lb, 배살 \$49.99/lb의 가격으로 판매한다.

H마트의 김범수 매니저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일반 손님은 이미 해체된 회를 볼 기회는 있었어도, 어떤 과정으로 해체가 되는지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H마트만의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가 반응이 좋아, 본사 차원에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

기적인 이벤트로 개최할 것을 본사와 논의 중이다.

한편, 김씨는 H마트는 주간 세일 관련 광고 이외에도 평일에도 광고에 실리지 않은 주중 세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화, 수, 목요일에 H마트 벌링턴 점을 방문한 대학생 고객은 5% 추가 할인과 1%의 적립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영상은 보스톤 코리아 홈페이지(www.BostonKorea.com)와 공식 페이스북(<http://facebook.com/BostonKorea1>)에서 확인할 수 있다. itshunne@bostonkorea.com

MIT 아시안 비즈니스 컨퍼런스 3월 5일 개최

오준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개막 연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MIT 아시안비즈니스컨퍼런스가 오는 3월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MIT 미디어랩에서 개최된다.

해마다 여러 분야의 경영인들을 초청해 각기 다른 주제에 대해 강연을 듣고 답하는 이 컨퍼런스에서 올해는 신규 에너지의 지속가능성, 재정, 기업가정신, 테크놀로지 등의 4가지 분야에 집중해 강연을 갖는다.

특히 올해 컨퍼런스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오준 유엔대사의 개막연설로 시작할 예정이다. 오준 대사는 ‘북한은 아무나 아니다’라는 유엔 연설로 깊은 감동을 이끌어냈으며 지난해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을 맡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올해 컨퍼런스의 주요 인사는



개막연설을 할 예정인 오준 유엔대사

벨토프트앤컴퍼니의 매니징 파트너 트로엘 벨토프트, 월담소재 서모 피셔 사이언티픽의 매니징 디렉터 앨런 다우델, 맥킨지 대만오피스 파트너인 알버트 장 등 많은 연사가 참여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협의회 교사연수회 및 사은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는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렉싱턴 소재 엘크스 클럽에서 교사연수회를 겸한 사은회를 개최한다.

이날 연수회는 개회식, 강용철 교사의 강연, 저녁식사, 특별공연, 우수교사 및 장기 근속교사 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순용 회장은 공문을 통해 “

2세들의 뿌리 교육은 물론 현지 외국인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역사 교육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마련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며 많은 현직교사들이 참여하길 당부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목통, 관절통, 근육통 등 만성 통증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러움, 메니에르 증후군
- ③ 비염, 천식, 알레르기, 위장, 스프레스 관절
- ④ 만성 암이후 재활, 근육통
- ⑤ 소화장애, 변비, 폐렴후 대장운동장애
- ⑥ 골관절염, 관절염, 관절염, 관절염
- ⑦ 만성적인 중추성 통증, 신경통, 이질
- ⑧ 기타 서양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기능성 장애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에 듭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비시추세초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보스톤 공립학교 예산 삭감 반대 시위

시청 앞에 수백 명 모여 주 의사당까지 행진
내년도 교육 예산 5천만 달러 삭감에 항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공립학교가 방학 기간인 지난 17일, 수백 명의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보스톤 시청 앞에 모였다. 보스톤 시의 교육 예산 삭감에 항의하기 위해 수백 명이 모인 것이다.

보스톤 공립학교는 내년 회계 연도에 수백만 달러의 예산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비용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지원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스톤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은 3,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명을 받아 교육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스톤 시에 제출했다.

보스톤 시는 내년도 교육 예산을 12억 7천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 최종 예산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3월 말까지 교육 위원회가 최종 예산을 결정해야 한다. 예상대로 내년도 교육 예산이 책정된다면 보스톤 학군은 약 5천만 달러의 예산 삭감을 겪게 된다.

보스톤 공립학교의 예산을 결정하게 될 교육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이 4년 임기로 임명하였다. 보스톤 시의

교육 예산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교육 위원회의 위원들이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로라 오게리 보스톤 시장 대변인은 월시 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보스톤 공립학교에 대한 보스톤 시의 지원은 9천만 달러 가까이 증가했다며 “월시 시장의 임기 첫 2년 동안 공립학

교에 지원한 예산 증가 액수는 다른 모든 부서의 예산 증가 액수를 합한 것보다 많다”고 말했다. 덧붙여 “보스톤 시 정부는 기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새로운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적절한 균형 예산을 찾기 위해 보스톤 공립학교와 함께 협력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 공립학교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주 의사당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비제이스도 앞으로 케이지프리 계란만을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부터 BJ's 케이지프리 계란만 판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비제이스 (BJ's Wholesale Club)가 향후 단계적으로 케이즈프리 계란만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식품 업체에 일고 있는 케이지프리 열풍에 비제이스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웨스트보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제이스는 2022년까지 기한을 정하고 이후부터는 케이지프리 계란만을 판매할 예정이다. 액체 형태로 판매되는 계란 관련 제품은 2025년 이후부터 케이지프리 계란을 사용한 제품만을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비제이스의 이 같은 발표는 올해 매사추세츠 주민투표 안건으로 다뤄질 법안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주민투

표에서 통과되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계란을 판매하는 모든 소매 업체는 2022년부터 케이지프리 계란만을 판매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농장에서 암탉 1마리당 최소 1.5스퀘어 피트 이상의 공간에서 사육한 암탉이 낳은 계란만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류의 경우에도 움직일 수 없는 작은 우리에 가두고 사육한 동물의 고기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비제이스에 앞서 던킨 도너츠, 맥도널드, 버거킹, 스타벅스 등의 회사들이 케이즈프리 계란만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비제이스는 미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200개 이상의 체인을 운영 중이다.

jsi@bostonkorea.com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원유 감산? 동결조치 '오리무중'... 빅3, 서로 딴소리

이란 "생산동결 효과 없다...사우디가 감산해야"

사우디 외무장관 "감산도 점유율 양보도 못해"

이라크, 생산량 동결 참여할지 끝내 표명 거부

(서울=뉴스1) 장안나 기자 = 유가 회복을 위한 산유국들 행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쉽다. '시장안정' 과제가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고 있다.

주초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원유생산량 조절 기대가 차츰 식어가는 양상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내 1·2·3위 산유국이 18일 원유감산에 나설 뜻이 없음을 일제히 내비쳤다.

포문은 이란이 열었다. 생산동결에 애매한 태도로 시장을 혼란시키더니 결국 속내를 드러냈다. 이란 소식통들은 "이란은 동결만으로는 시장을 지지하기 힘들다고 본다"며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을 촉구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원유시장의 문제는 공급과잉이므로 초과 공급분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원유를 최대한으로 생산해온 이들이 산유량을 동결해야 시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공세에 사우디가 정면 반박했다. 시장점유율을 양보할 뜻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아델 알주바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산유국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산제한 또는 생산동결 합의를 원한다고 해도 사우디는 감산에는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유 문제는 수급과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사우디는 시장점유율을 보호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해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산유량을 가장 빠른 속도로 늘린 이라크도 두 나라를 따라 슬쩍 발을 뻗었다. 이라크는 그동안 이란을 포함한 국가들이 모두 동참한다면 자신들도 생산량을 제한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날 아델 압델 메디 이라크 석유장관은 "산유량을 억제하기로 한 모든 산유국 간 화해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면 서도 이라크가 생산량 동결에 동참하지는 끝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카르텔 회원국들 간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산유국들 간 협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었다.

시티의 셰스 클라인만 애널리스트는 "이란은 증산의 여력이 가장 큰 만큼 생산량 동결에서 잃을 것도 제일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를 헐값에 넘겨서라도 현금을 챙겨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산유국들 요구에 쉽게 응해줄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subway@news1.kr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전지대

미 지난주 원유재고 또 사상 최대 원유수입 증가 탓

지난주 미국의 원유재고 전주보다 210만배럴 증가
미국의 지난주 원유수입 일평균 79만5000배럴 증가

(서울=뉴스1) 장안나 기자 = 미국의 지난주 원유재고가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증가는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정유공장 가동이 늘었지만 원유수입이 증가한 점이 재고증가로 이어졌다.

정제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늘어나고 휘발유 재고 역시 급증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미국의 원유재고가 전주보다 210만배럴 증가한 5억410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시장에서는 390만배럴 증가를 예상했었다.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시장 거래분 인도 지역인 쿠싱의 재고도 3만6000배럴 증가한 6470만

배럴로 집계됐다. 2주 연속 역대 최대기록을 갈아치웠다.

정유공장의 원유 처리량은 일평균 33만8000배럴 늘었다. 정유공장 가동률은 88.3%로 전주보다 2.2% 포인트 높아졌다.

휘발유 재고는 300만배럴 증가한 2억5870만배럴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시장 예상치인 50만배럴보다 여섯 배나 큰 증가폭이다.

난방유와 디젤을 포함하는 정제유 재고는 예상과 달리 140만배럴 늘었다. 시장에선 150만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지난주 원유수입은 일평균 79만5000배럴 증가했다.

subway@news1.kr



석유수출국기구(OPEC)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국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나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과 대학원(MBA)을 마치고 10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에서의 환경,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업중이며 물경매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인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978.866.3248
카카오톡 ID: jusrangnim

집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올해가 적기

집을 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좋은 조건입니다. 현재 이자율이 낮은 편이며 집 값은 점점 오르는 추세입니다. realtor.com에서는 올해(2016년) 보스턴 지역의 집 값이 약 6%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연방정부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모기지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 현재 3.56%(30년 fixed)로 2015년 4월경 이후 최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데로 미국은 한국과 달리 전세가 없고, 월세비가 한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집을 구매해서 렌트비로 나가는 돈을 용자금으로 상환하고, 세금을 내고, 유지가 가능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미국 부동산 투자가 부동산 경기가 점점 회복이 됨에 따라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3년 이상 보스턴에 거주 분들의 집 구입을 권유합니다. 보스턴과 가까운 지역은 타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크기로 방2+화2 1500 SF의 렌트비는 최소 \$ 2,400 이상을 요구하며 학군 좋은 곳들의 비교적 깨끗한 아파트들은 3,000불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주택가격 \$400,000 달러
다운페이 \$100,000 달러
용자금액 \$300,000 달러
용자 이율 4.5%(높게 잡음), HOA(콘도 관리비) 매달 \$300, Home Insurance : 800/Yr
세금등을 합하여 계산하면, 한달 페이먼트가 약 \$2287불 나옵니다.

\$100,000불의 다운 페이로 40만불 정도의 콘도나 타운홈을 구입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투자용 부동산 구입을 제외하고도, 매달 렌트로 페이먼트를 내야하고,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무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구입해야하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먼저 매달 나가는 렌트비를 용자금으로 상환함으로써 허공으로 날아가는 비용을 저축할 수 있고 재산세 및 용자금 원금을 제외한 이자 비용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본이 여유로운 투자자 뿐만 아니라, 무주택 소유자나 어느 정도의 다운페이로 통해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 또한 많은 고민이나 부담없이 부동산 구입을 해야할 적기입니다. 물론 집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렌트비로 나가는 돈 보다는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모기지율도 현재는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최고 18.5% 까지 올랐을 때도 집 거래는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은 모기지율이 상승하는 것보다 향후 집값이 더 오를 전망이 우세합니다. 참고로 현재 보스턴 중심 지역의 콘도는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매물로 나오는 값 보다 높게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뉴스타 부동산의 GINA CHOI 에게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미 전국여론조사, 샌더스·클린턴 1위 초접전

샌더스, 트럼프와 가상 대결서 클린턴 제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미국 대선 경선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이 두 건의 민주당 전국 여론조사에서 각각 지지율 1위를 차지하며 초접전 중이다.

18일 공개된 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이 53% 지지율로 샌더스(42%)를 11%포인트(p) 격차로 제치고 압도적 선두를 달렸다.

하지만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11%p)는 지난 달 공개된 전국 여론조사의 25%p 차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것이다. 이달 1일 아이오와 코커스와 함께 시작된 샌더스 열풍이 전국 조사에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폭스뉴스가 진행한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샌더스가 47% 지지율로 클린턴 후보를 3%p로 제치며 지지율 1위에 올랐다.

샌더스는 지난 달 진행된 여론조사보다 지지율이 10%p 치솟으며 대세를

임졌다. 반면 클린턴은 지난 달보다 5%p 줄어들었다.

특히 여성과 백인, 민주당원을 중심으로 지난 달 대비 지지율이 큰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에게 가장 취약한 집단은 블루칼라, 백인 민주당원이며 주요 지지자는 흑인과 대학 졸업자로 알려졌다.

샌더스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도 클린턴보다 우세했다. 샌더스와 트럼프 매치는 53% 대 38%로 드러난 반면 클린턴과 트럼프 격전은 47% 대 42%로 그쳤다. 이는 지지 정당이 없는 유권자들일수록 트럼프와의 매치에서 클린턴보다 샌더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한편 NBC 여론조사에서는 각 후보의 우려할만한 부분을 묻는 질문이 포함됐다. 클린턴은 월가와의 유착 관계(22%), 샌더스는 외교 문제의 경험 미숙(26%)이 대표적 약점으로 거론됐다.

hemingway@news1.kr



버니 샌더스 민주당 대선후보

미 '민주주의의 보루' 대법관 임명은 어떻게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의 대표적 보수파로 꼽혀온 안토닌 스칼리아(1936~2016) 대법관의 타계로 공석이 된 후임 대법관에 누가 임명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임명을 선거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일축하고 자신의 헌법적 고유권한에 따라 지명을 위한 인선절차에 들었다.

삼권분립이 확고한 미국에서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SCOTUS)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합한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통해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의 중추국 미국의 기틀을 완성했다.

실례로 지난 해 6월 동성간 결혼 합법화를 결정했으며 또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 지원을 합헌으로 결정해 오바마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2000년 미 대선 때는 수작업 재검표를 위헌으로 판결해 앨 고어 후보와 아슬아슬한 접전을 벌인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확정지었고, 이보다 수십년 전인 1954년에는 흑백 분리정책을 위헌으로 판시해 미 인종 문제를 한단계 진보하게 만들었다.

◇ 대법원 정원 원래 없어... 1869년부터 9명 '전통'

미 헌법은 대법관 인원수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1869년이후 9명을 지키고 있으며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승인한다. 대법

원장은 각각 관례에서 첫번째로 표를 행사하며 대법원의 의견안을 작성할 대법관 지명권을 갖는다. 또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주재할 권한도 주어진다. 하지만 대법원의 모든 판결은 1인 1표의 원칙으로 다수결로 결정된다.

또 대법관 전원의 임기는 종신제라 9석의 구성원에 따라 차기 정권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칼리아의 후임을 뽑는 임명 절차가 미 대선에 버금가는 정치 이벤트로 부각된 이유다. 현재 스칼리아가 빠진 8명의 대법관은 진보와 보수가 각 4명씩 동수로 어떤 성향이 임명되느냐에 따라 무게중심이 달라진다.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엄중 검증 절차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에 인준받을 대법관 후보자를 직접 지명하게 된다. 미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 고문실은 자체적으로 대법관 후보가 될만한 인물의 리스트를 갖추고 있다. 상시적으로 이 리스트를 업데이트해 오바마에게 정보를 건네고 가능성 있는 후보를 소개하는 것이다.

후보자 중에는 판사들뿐만 아니라, 정치인, 일반인까지 대법관에 어울릴만한 사람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들의 인적사항부터 정치적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사적인 '글'까지 모두 검증을 거치고 후보자를 5~6명으로 간추려 인터뷰를 진행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두 연방 대법관을 임명했을 때 고문으로 나선 론

클레인은 "그가 얼마나 홀로 깊이 고민하고 고려해 결정했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최종 후보는 대통령과 비슷한 이념적 성향을 지닌 사람이 되지만 결과가 엇나간 경우도 종종 있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1890~1969)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얼 워런 대법관이 예상과 달리 진보적인 판결을 잇따라 내리자 그의 지명을 두고 "내 인생 가장 멍청한 실수"였다고 술회했다.

과거 두 명의 여성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대법원의 성비 균형에 크게 일조했던 오바마가 이번엔 아시아계를 지명해 인종적 균형을 맞출 것 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인도계 스리 스리니바산(48)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와 베트남계 미국인인 재클린 응우옌(50) 제9 순회항소법원 판사 등이 대표적인 예다.

◇ 상원 인준 과정...FBI 과거 행적 조사도

대통령이 최종 선택된 후보자를 상원에 알리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즉각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낱낱이 조사한다. 또 후보자는 재산 규모, 납세 기록 등을 포함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상원 전체 표결에 부쳐 과반수 찬성 및 반대로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필리버스터(의회 다수파의 결정을 막기 위해 진행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가 발휘될 수도 있다. 이때는 상원 정수 100명 중 60명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다.

yjw@news1.kr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30 min / Lexington 30 min / Newton 20 min

Email: sunautobody@yahoo.com



크레딧 교정,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only \$87로 전문적인 고객센터 서비스 (per Month, FPP) \$499 (1 Year Money Back)

Collection / Late Payment / Charge Off / Bankruptcy / Judgement / Lien / Repossession / Foreclosure / Garnishment

FES는 믿고 맡길 수 있는 크레딧 교정 전문 회사입니다

1.고객이 신뢰하는 크레딧 교정 복원 전문회사입니다 (Since 2004)

2.미국내 신용평가 기관인 www.bbb.org 에서 BBB rate A+

3.고객의 신용정보 보안을 위해 모든 교정진행 상황은 온라인으로 진행

4.크레딧 교정작업은 크레딧 교정 전문 변호사가 처리

5.고객은 www.united-credit.org를 통해 본인의 진행상황을 직접 수시로 확인가능

6.Late payment, Foreclosures, Judgements, Bankruptcy, Collection, Charge offs, Short Sale 과 같은 Bad credit history 기록들을 삭제해 크레딧 점수를 높여 드립니다

FES는 신속한 결과와 1년간 환불 보장

1.크레딧 교정 복원 비용: \$87 / Month, \$499 / 1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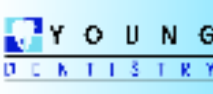
2.신속한 결과: 일반적인 경우 3개월 이내에 모든건 삭제처리, 단 Hard case 의 경우 약 8개월에서 12개월에 처리함(매월별 기록 삭제됨과 동시에 크레딧 점수 상황 조정됨)

3.1년간 고객만족 서비스: 교정이 끝난후에도 가입등록 시점에서 1년간 크레딧 특별관리

4.환불보장: 크레딧 점수가 상황조정되지 않으면 1년안에 즉시 환불 조치함.

미주 전지역 상담문의: 한국어 상담 니콜 리 DIRECTOR (Credit Restoration Specialist) T 617.921.5127

크레딧 복원 교정 전문가 www.myfes.net/HLee34 www.financialeducationservices.com Nicole Lee www.uniteded-credit.org | www.lesuniversity.com Email: fescreditnicole@gmail.com | 161 Harvard Svenue Suite 2 Allston, MA 02134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미 텍사스대, 강의실 총기 반입 공식 허용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미국 텍사스 대학교가 학생들이 교내 강의실에 총기(권총)를 반입하는 것을 공식 허용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그레고리 펜브스 텍사스대 총장은 17일 낸 성명에서 "고등교육기관에서 총기의 존재는 탐구와 자유로운 연설, 토론에 기반한 교육을 제공하고 연구해야 할 우리의 사명에 반하는 것이나 총장으로서 나는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강의실에서 총기 휴대를 허용한다고 선언했다.

그간 캠퍼스 내 총기 반입 금지를 주장하는 교수진을 비롯 학생, 학부모 등으로부터 수많은 항의 편지와 이메일들을 받아왔다는 펜브스 총장은 "그간 일부 교수진들은 총기 휴대 허용은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크게 우려를 나타내왔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그는 "사실 고등교육기관에서 총기의 존재는 탐구와 자유로운 연설, 토론에 기반한 교육을 제공하고 연

구해야 할 우리의 사명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총장으로서 나는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 총기 면허수 1위인 텍사스의 주 의회는 지난달부터 캠퍼스 등 공공 장소에서 권총 소지를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텍사스 주에서는 총기소지자가 상대방에게 총기 휴대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릴 경우 대학 캠퍼스 등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도 권총을 소지한 채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 경기가 열리곤 하는 캠퍼스 내 주점과 보전소, 일부 실험실과 기숙사에서는 총기 반입이 여전히 금지된다고 펜브스 총장은 밝혔다.

오스틴에 위치한 텍사스대학교는 지난 1966년 예비역 해병대원이었던 찰스 휘트먼이 총기를 난사해 14명이 죽고 30명이 부상당하는 참극이 발생했던 곳이다. 이 사건은 세계 최초의 교내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baebae@news1.kr



지난해 12월 텍사스대 총기 찬성 운동가들이 총기 휴대 법안의 주의회 통과를 환영하기 위해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로 행진하고 있다

"The government is asking Apple to hack our own users"

-Tim Cook



애플은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다

안보 지원 vs 프라이버시...애플의 '거부'로 논란 점화

(서울=뉴스1) 김정환 기자 =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애플과 미국 정부와의 갈등이 법률해석 문제로 이어지며 장기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17일 애플은 지난해 12월 샌버너디노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범인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다.

전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에 대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이슬람국가(IS) 지원조직 연계 테러범 부부 중 한 명이 사용한 아이폰의 교신 내용을 수사할 수 있게 합리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팀쿡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발표,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조치다"며 "당면한 법적 문제를 초월한 합의의 지닌 것"이라고 비난했다.

애플은 최근 수년간 구글 등 다른 기술기업들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해왔다. 당사자만이 기기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디지털 업계는 개인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개선이 고객의 신뢰 유지에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당국과 수사기관들은 기술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범죄자와 극단주의자들이 강화된 기기 잠금장치 때문에 각종 불법행위들을 은폐할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애플에 내린 잠금장치 해제 명령은 개인정보 옹호론자들 사이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명령이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도 무분별한 개인 감시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시민권연맹(ACLU)의 알렉스 엡드 회장은 "FBI가 애플에 대해 고객의 기기 해킹을 강요할 수 있게 될 경우 전 세계 다른 국가의 모든 억압적인 체제가 이를 따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애플은 중대한 안보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도 동시에 받고 있다.

툼 커튼 아칸소주 상원의원(공화)은 "애플이 미국인의 보안보다 사망한 ISIS(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이슬람국가 명칭) 테러리스트

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LA 연방지원의 명령은 1789년에 제정된 '영장법'(All Writs Act)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법은 법원에 대해 공권력의 법집행을 지원할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블로그 '정의로운 안보'(Just Security)의 공동 편집자를 겸하고 있는 아메리칸대학의 스티브 블라텍 교수는 "정부가 애플에 대해 잠금장치를 해제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강요한다면 앞으로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며 "법원이 기업에 대해 연구와 설계를 강요하는 명령을 내린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과연 FBI가 원하는 수준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헤이스 교수는 "애플이 자사의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지만 애플의 반박으로 볼 땐 잠금장치 해제 능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acenes@news1.kr



CHESTNUT HILL MALL | NATICK MALL
NOW HIRING



CALL
1.877.486.4756
VISIT
uniqlo.com

직접 매장을 찾아 인터뷰를 신청해 주세요

Uniqlo The Mall at Chestnut Hill : 199 Boylston St. Newton MA 02467
Uniqlo Natick Mall : 1245 Worcester St. Natick MA 01760

홍용표 말 바꾸기 논란... "증거자료 아닌 의혹 관련 자료"

개성공단 외화 북 지도부에 상납 관련 자료 있다더니...국회 외통위서 말바꾸기
기자회견 · '일요진단'서 "정보 자료로 공개 힘들다"고 한 발언도 뒤집어

(서울=뉴스1) 권혜정, 황라현 기자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으로 유입된 외화가 북한 당국에 상납된다는 정부의 주장과 관련해 전날까지도 '관련 자료가 있다'던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자신의 말을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홍용표 장관은 15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성공단 상납 의혹에 대해 '자료가 있다'고 발언한 것은 "와전된 부분"이라며 "증거자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같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해명이 빨리 나오지 않으니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며 의혹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가 있음을 의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거 자료가 아니라 그런 의혹 관련 자료를 염두에 두고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현금의 70%가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서기실로 들어간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홍 장관은 또 "근거 자료를 공개하

기 힘들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며 "관련 발언의 진위가 잘못 알려진 것으로 설명이 충분치 못해 오해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2일 기자회견과 14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서의 발언을 스스로 뒤집은 결과를 낳았다.

홍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나온 자금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관련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했을 것"이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나중에 검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14일 '일요진단'에 출연해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

이날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가져간 현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주장한 홍 장관은 "북한 당국의 외화는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

되고 있다"며 "그 돈은 핵과 미사일 개발,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느냐'라는 사회자의 질

문에 "정보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다. 그랬던 홍 장관이 15일 국회 외통위 질의에선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을 번복했다.

홍 장관의 발언으로 개성공단 외화가 북한의 핵 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 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우리 정부 스스로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홍 장관의 태도 변화는 이 같은 여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해석되지만, 단 며칠 사이에 완전히 뒤바뀐 홍 장관의 '말 바꾸기 논란'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jung9079@news1.kr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Kalin Bae (배 경은)
617-981-1542



Didi Joo (조 수희)
508-641-8924



WELLESLEY
...\$ 1,249,000



NEEDHAM
...\$ 739,000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FEB. 19TH - FEB. 25TH, 2016

—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
 Sign up for Smart Card today and receive great deals only members can get!

CUSTOMER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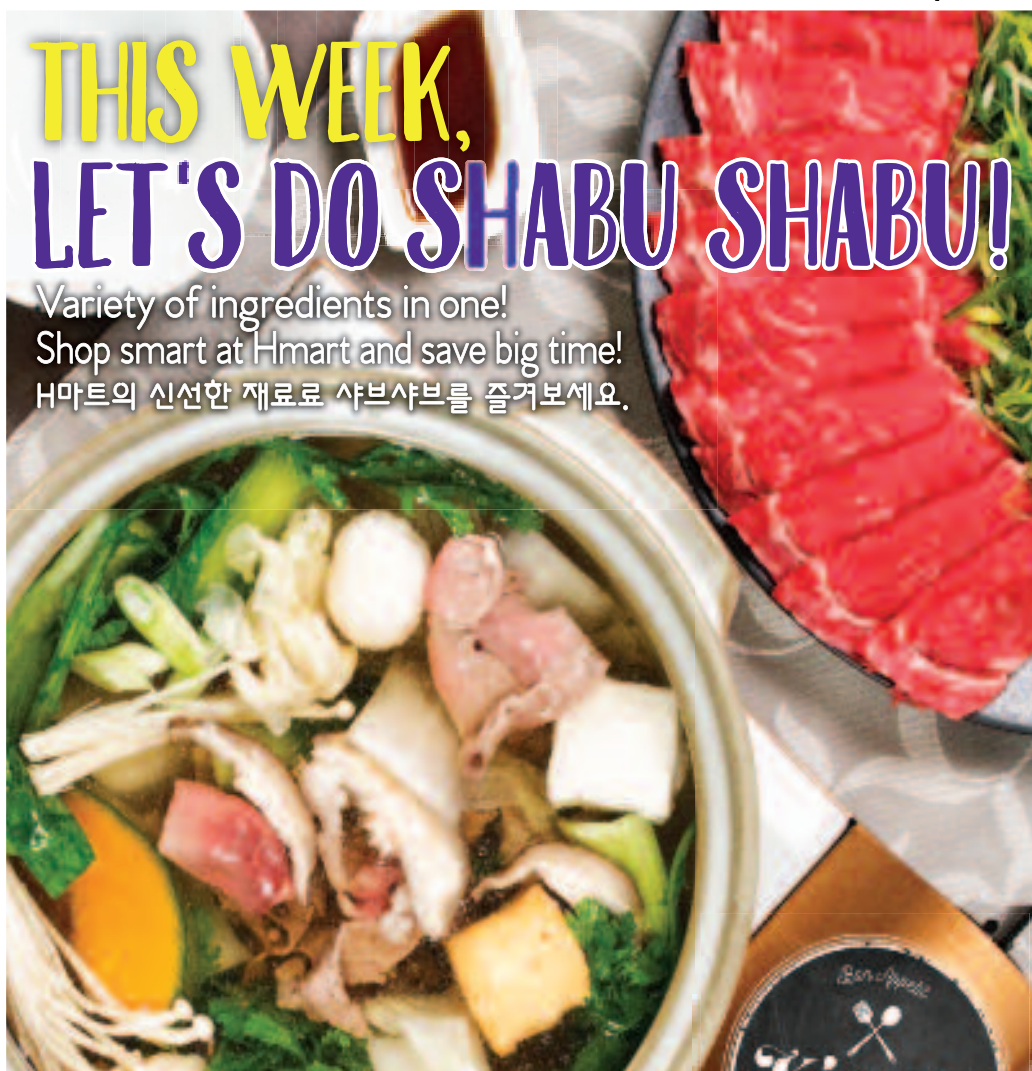
TOLL FREE TEL.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and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Instagram, and WeChat for special offer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NLY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10 MIDDLESEX TPCE. BURLINGTON, MA 01803

THIS WEEK, LET'S DO SHABU SHABU!

Variety of ingredients in one!
 Shop smart at Hmart and save big time!
 H마트의 신선한 재료로 샤브샤브를 즐겨보세요.



Shabu Shabu / 샤브샤브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KOKUHO Extra Fancy Medium Rice (Yellow) 국보 쌀 (옐로우) 15 lbs. **\$10.99**

PULMUONE Fresh Udon All Varieties/16.4 - 17.2oz. **\$4.99**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fl.oz. **\$14.99**

PRODUCE  picked at the peak of freshness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박스 box **\$24.99**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49**

Ginger 생강 lb. **\$1.29**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lb. **\$0.99**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8oz./pkg. **\$3.99**

MANNA I Love Tofu 아이 러브 두부 All Varieties/14oz. **\$0.88**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eef Short Rib Chunk for Stew 찜갈비 lb. **\$11.99**

Bonless Pork Loin for Cutlet 돈까스용 돼지고기 lb. **\$4.99**

Whole Chicken 통닭 lb. **\$1.49**

Beef Heel Meat 소 사태 lb. **\$7.99**

Thinly Sliced Beef Short Plate for Shabu Shabu 샤브샤브용 냉동 우삼겹살 lb. **\$9.99**

Thinly Sliced Pork Single Rib Belly for Shabu Shabu 샤브샤브용 냉동 삼겹살 lb. **\$9.99**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Bronzini 브론지니 lb. **\$6.99**

Cooked Snow Crab 냉동 스노우 크랩 lb. **\$9.99**

TONG TONGBAY Raw Peeled Shrimp 통통배 판 새우 26-30's/1 lb. - pkg. **\$8.99**

TONG TONGBAY Half Cut Swimming Crab 통통배 절단 꽃게 1lb./1L=pkg. **\$2.99**

TONG TONGBAY Small Octopus 통통배 상성낙지 15 lbs./Whole=pkg. **\$6.99**

SANFORD Half-Shelled Mussels 반관 홍합 2 lbs./pkg. **\$7.99**

NONGSHIM Cup Noodles Soup Shin/Neoguri/Udon/Shrimp 2.1 - 2.64oz. x 6ea./box **\$4.99**

CHUNGJUNGONE Red Pepper Paste 청정원 순장 태양초 찰고추장 6.6 lbs. **\$12.99**

AJINOMOTO Dipping Sauce 트렙페트 아지노모토 다핑소스 All Varieties/10oz. ea./for **2\$5 \$6.99**

YOO DONG Canned Bai Top Shell 유동 자연산 굴뱅이 통조림 14.1oz. **\$6.99**

TONGTONGBAY Premium Imitation Crab Stick 통통배 프리미엄 게맛살 1.1 lbs. **2\$5**

HOUSE Vermont Curry 하우스 버몬트 카레 All Varieties/8.8oz. **\$2.99**

HAIOREUM Japanese Style Noodles U-dong 8.82oz. x 5ea./pkg. **\$2.99**

ITO EN Tea Drink ITO EN 티 드링크 All Varieties/500mL **\$2.99**

ESENCIA Grapeseed Oil 에센시아 포도씨유 34fl.oz. **\$4.99**

DELIA Quilted Microfiber Comforter 델리아 극세사 차렷이불 Blue/Pink - ea. **\$39.99**

KÜHAUS Electric Ceramic Heater HSNT-12/ea. **\$59.99**

ZO JIRUSHI Electric Skillet EP-RAC50XW/ea. **\$129.99**

Harim 한국에서 맛보던 그맛! 한국산 하림 삼계탕을 H마트에서 즐겨보세요~

IT'S KOREA'S VERSION OF CHICKEN SOUP, BUT NOW IT IS EASIER THAN EVER TO COOK. ALL THE INGREDIENTS ARE PRE-PACKED AND READY TO EAT. JUST SIMMER AND SERVE.



'개성공단 자금 전용' 논란...청 미루고 통일부 꼬이고

청 "통일부에서 설명"...통일부, 증거 자료 말 바꾸기 논란 계속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청와대와 통일부의 명확하지 않은 해명으로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노동당 지도부로 유입돼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증거 자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해명 창구를 통일부로 미뤘으나 일각에선 통일부의 자료 존재 반복 논란에 비춰 청와대 입김으로 통일부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노동당 지도부 유입 주장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정부가 갖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통일부에서 설명한 결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설명이 통일부 몫이라는 입장이지만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증거 자료 존재 와전' 발언이 나온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16일) 국회 연설에서 자금 전용 과약을 언급한 만

큼 석연치 않다는 분위기다.

전날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배경에 관해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자금 외화가 노동당 지도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얘기다. 다만 당이 이를 어디에 썼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화법이다.

이런 발언은 앞서 홍 장관이 지난 12일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러 관련 자료가 있다.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했을 것"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홍 장관은 지난 14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했으나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말을 뒤집었다.

홍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증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개성공단의 외화가 북한 노동당에 흘러들어간 것은 확인되지만 이후 핵 개발 등에 사용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홍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 등의 제공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의식해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해석으로도 이어졌다.

통일부는 외통위 전체회의 당일 해명 자료를 내고 "홍 장관이 말을 번복했다거나 개성공단 자금 유입의 증거가 없다고 보도한 것은 장관의 발언 취지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과 기타 비용의 70%가 노동당 서기실 및 39호실에 상납돼 핵과 미사일 개발이나 치적 사업 또는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지만 각각의 비중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증거를 둘러싼 설왕설래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 않고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노동당 유입을 언급해 기존 논란에 더 불을 지피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정 대변인은 통일부 입장과 박 대통령 연설이 상충된다는 지적에도 "통일부에서 필요하면 추가로 더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통일부의 지난 15일 해명 자료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을 제기했지만 통일부는 이날 "통일부 해명 자료는 통일부에서 직접 작성한 것이다.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또한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노동당 지도부로 유입됐다고 한 통일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증거 자료에 관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girin@news1.kr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의 개성공단 모습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분단쪽박'...교섭단체 대표연설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두고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는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커녕 '한반도 냉전프로세스'를 만들더니 아예 '한반도 열전프로세스'의 시작단추를 누른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2조~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해온 일자리·중소기업·민생정책과는 전혀 상반되는 조치"라면서 "대(對)북한 압박 과정에서 생길 안보불안은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에 '코리아 프리미엄'이었다.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차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희망이었다"면서 국회 차원

의 특위를 구성,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 개성공단을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이번 사태에 따른 정보·외교·안보·통일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홍용표 통일부장관에 대해 "건국 이래 '최단기간 최다 말바꾸기 기록'을 세운 장관이 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회 연설에서 이 발언을 되풀이했으며, 이는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던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면서 2004년 미국이 '후세인이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중'이라는 잘못된 정보보단에 따른 반성과 재발방지로 2차 대전 이후 대규모 정보·안보기관 재편을 한 것을 교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쟁점법안 중 하나인 테러방지법에 대해 "안보·정보기관의 재편·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북한인권법과 관련 "박근혜정부의 북한인권법은 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의 이중성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 북한인권법이 처벌 목적이 주가 된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된다"며 "더민주는 평화통일의 촉진과 북한인민의 실질적 생존권 보장이 이뤄지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선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대북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한 단면"이라며 "대(對)중국 무역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과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ho11757@news1.kr

황교안 "개성공단 폐쇄, 긴급명령 아닌 대통령 정치적 결단"

대정부질문 출석..."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행한 것"

(서울=뉴스1) 김현, 서미선, 박승주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논란과 관련, "(이번 조치는) 긴급명령으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한 것"이라며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개성공단을 중지하면서 기한도 정하지 않고 청문도 실시하지 않아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행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민주국가에선 고도의 통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김 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게 고도의 정치행위에 관한 법리"라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 "(핵무장론은) 국가의 안보가 우려돼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로, 한반도에선 핵무장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가 배치될 경우 제기되는 전자파 위험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한 단계로서 어떻게 될지는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사드는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영향이 없다고 과학적으로 나온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또 테러위험과 관련, "국제적 테러 대응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데 법이 없어서 외국과 정보를 주고받을 방법도 없다"면서 "테러 분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확인돼도 처벌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테러 무방비인 상태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테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 한다"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황 총리는 '범정부차원의 테러대책기구가 있느냐'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상시적 기구는 따로 없다"고 답변했다가 김 의원으로부터 '1982년 제정된 국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가테러대책회의가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당하기도 했다.

gayunlove@news1.kr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작은 **통증** 참지마세요

원장 윤창교수를 비롯한 전문 의료진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책임있고 성실한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정형 물리치료, 소아 물리치료, 신경학적 물리치료 및 척추 진단 검사 등을 통해 보스턴 한인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 각종통증치료,
목, 허리 디스크, 관절염
〈특급보형〉
학성보형, 여형자보형,
개원보형 PPO, 상해보형



원장: 윤창
Dr. Chang Yoon, DPT

닥터스통증병원 대표원장
워싱턴 하버드병원 재활의학과과장
뉴욕 닥터스크리닉 원장
네지니아 한국병원 원장
보스턴 노스어스턴 물리치료학 박사



닥터스 통증병원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www.GoodPT.com TEL: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지나 정(Gina Chung) 사원이
한인 및 유학생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 체크계좌 < No minimum balance
No maintenance fee

무료 비즈니스 계좌

모바일 뱅킹

은퇴자금 관리 서비스, 모기지
상업용 부동산 대출, 사업 및 투자 대출

올스톤 지점을 방문하셔서
지나 정 사원을 찾아주세요



181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800.657.3272 | 857.524.1673
email: cchung@ebsb.com
Kakao talk: haimhaelle



Member FDIC. Member DIF.

수세에 몰린 북...한 · 미 '키리졸브'를 앞두고 위협 수위 높여

F-22 등 겨냥 "핵위협공갈" 날선 반응
장거리 미사일 추가 도발 시사

(서울=뉴스1) 김효진 기자 = 북한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KR) 및 독수리연습(FE)을 앞두고 우리 정부와 미국을 향해 연일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는 한편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오는 5월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체제 결속을 꾀해야 하는 만큼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직접 겨냥해 비난 수위를 높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1일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부터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응해 북한은 남측인원을 추방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 후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다.

당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대결악녀', '열간망둥이' 등 인식 공격성 발언을 했다.

이후 북한 권력 서열 2위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우리의 자주적 권리를 침해한다면 모조리 죽탕쳐 버리겠다(쳐서 물골 없이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북한 매체들은 연일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음달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키리졸브(KR) 및 독수리연습(FE)을 겨냥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8일 "호전광들이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고 있다"며 "조선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군사적행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 한미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에 미국 핵항공모함 '스테니스'호,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 무기들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에 대한 핵위협공갈을 노골적으로 감행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수세에 몰리고 있는 만큼 위협 수위

도 함께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F-22는 레이더망을 피해 김정은 제1비서의 집무실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항공전력으로 꼽힌다.

김 제1비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지난 1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일정을 바꾸고 당 간부들과 따로 움직인 것 역시 미군 폭격을 우려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북한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추가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나 NLL(서해 북방한계선) 이남 지역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저강도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제1비서는 지난 15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처음 한 공개발언에서 "실용위성을 더 많이 쏘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이 이날 공개한 350여개 공동구호에서도 "선군조선이 어떤 기적을 창조해 5월의 하늘가에 승리의 축포를 어떻게 쏘아올리는가를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추가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jinhk@news1.kr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상공에서 미군의 전략무기 F-22 스텔스 전투기가 착륙해 있다

날개 단 박지원, 행보는...누구의 러브콜에 응할까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즉각 '러브콜'

(서울=뉴스1) 조소영, 서미선 기자 = 박지원 무소속 의원(전남 목포)이 '기사회생'했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다시 사건을 보냈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및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기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이 난 만큼 박 의원은 4·13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날개'를 달게 됐다.

야권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의원을 향해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분위기다.

박 의원은 앞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서 양당의 '개혁공천안(案)'에 따라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되는 인사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공천의 길'이 열리게 됐다. 박 의원은 '야권의 텃밭'

인 호남지역 큰 어른인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자칭타칭 후계자로 불린다.

일단은 박 의원이 더민주에서 탈당한데다 동교동계 인사들을 비롯해 호남 현역의원들이 국민의당에 다수 포진한 만큼 국민의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전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유죄판결이 매우 엉터리라고 했는데, 사필귀정"이라며 "당에서 의논해 봐야겠지만, 박 의원과 힘을 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도 지난 15일 박 의원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영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느냐는 데 대해 "그렇다.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도 영입경쟁에 곧바로 뛰어 들었다. 더민주는 박 의원의 대법원 판결 직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러브콜'을 김성수 당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다행스럽다. 우리 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분으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난 만큼 당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며 "김 대표는 최근 박 의원과의 통화에서 '무죄

로 파기환송될 경우, 당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으며, 일단 무소속으로 머물며 '야권통합 운동'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 측은 통화에서 "목포에서부터 야권통합 운동을 할 듯하다"며 "지금 어디엔가 소속하게 된다면, 통합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4시15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의원실에서 향후 행보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

다. pej86@news1.kr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의 개성공단 모습

정부 "일본에 맞서 위안부 입장 유엔서 밝힐 것"

"북 대남테러 역량 결집...재외국민 안전 위해 만반의 대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정부는 한반도 사드배치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에 대해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안보에는 영향이 없음을 강조하며 중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이 유엔 등의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모집 강제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우리 안보와 국익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이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조치로서 검토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 한반도 배치로 인해 중국의 안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도 중국 측에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또 중국이 왕이 외교부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

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협상방식을 제안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의 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9·19공동성명에 따라 비핵화가 진전됨에 따라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앞두고 남측을 겨냥해 테러 역량 결집을 지시한 것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 재외 국민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전 재외공관에 테러대비를 위한 지시를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앞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정확하지 않은 위성 궤도와 주파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ITU가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김광철 북한 체신상 앞으로 발송했음을 밝혔다.

jung9079@news1.kr

이한구 "김, 용납 안하면 할 수 없지"...공관위 회의 '싸늘'

이, 비박계 공개 유감 표명 요구 거절 '신경전'

(서울=뉴스1) 차윤주, 이정우 기자 = 새누리당 공천 룰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는 공천관리위원회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천 신청자 심의에 착수했다.

이 위원장의 지난 16일 '17개 광역시·도별 1~3개 선거구 우선추천지역 선정' 방침을 공관위원간 합의 없이 갑작 발표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비박(비박근혜)계 황진하 사무총장·홍문표 사무1부총장이 이에 대한 유감 표명을 재차 요구했지만 이 위원장은 거부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공천에서 개혁공천을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또 역사상 처음 실시하는 상향식 공천 제도를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실시할 의무가 있다"며 "개별 의원들을 심의하고 경선과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그 취지에 맞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짧은 모두발언을 끝낸 이 위원장은 회의의 비공개 전환을 선언했지만 홍 사무1부총장이 "잠깐 (비공개) 회의 전에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자)"며 제지했다.

이 위원장의 16일 돌발 브리핑 후 김 대표의 전날 당 비공개 회의에서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수용 안된다"고 격노했고, 이 위원장은 "당 대표가 물러나든 내가 물러나든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전날 "최근 공관위 활동과 관련해 혼선된 보도가 나가게 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결과를 발표할 때는 위원회 위원들과 논의한 뒤 발표하겠다"며 해명성 사과를 했다.

홍 사무1부총장은 공관위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그 애긴 나중

에 하자"고 피했고, 홍 사무1부총장은 "우리 위원님들 중 몇분이 제게 전화해 오늘 참석을 고민하셨다. 그래서 차라리 오늘 여기서 한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는 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압박했다.

이 위원장은 못 이긴 듯 "우리 내부에 의견 차를 어떻게 정리할거냐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우리가 친박이니 뭐니 자꾸 계파의 이해충돌처럼 비치고 있는데 굉장히 유감이다.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은 개혁을 하겠다 사람하고 기득권을 수호해야겠다는 사람들 간에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오히려 자신과 다름 중인 김 대표 등을 '기득권 수호자'로 격하했다.

이에 황 사무총장은 "(이 위원장이)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줘서 유감 표명도 하셨다. 이 문제는 하나씩 짚고 넘어가자. (앞으로는) 합의된 내용을 발표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기왕 같이 해주시면 좋다"고 재차 유감 표명과 '민

주적'인 공관위 운영 방침 선언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자꾸 기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하나"면서 "공개 회의는 이걸로 그치겠다"고 했고, 친박계 박종희 사무2부총장도 "공개회의는 이만하시죠"라고 거들었다.

황 사무총장이 "말씀이라도 조금 하고 넘어가시라"는 거듭 요구했지만,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 김 대표를 향해 "용납 안하면 할 수 없지"라고 반응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공관위가 당헌·당규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친박계 서청원 최고위원과 거칠게 언쟁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당헌당규는) 나도 지킨다"고 했다.

chacha@news1.kr



새누리당의 공천 룰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진하 사무총장 등 공천관리위원들과 회동을 가진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상돈,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으로 합류..."운명이려니"

합류입장 밝힌지 보름만..."건전한 제3당 필요", "공천 관련 변화모습 보이는 게 중요"

김한길 상임 선대위원장은 회견 불참, 진보성향 정동영 합류엔 '빨간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17일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이 교수는 당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는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 김영환 인재영입위원장과 함께 회견을 열어 국민의당 입당을 선언했다.

이 교수는 "거대여당과 거대야당이 스스로 쇄신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고식적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탈피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선 건전한 제3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동참한다"고 말했다.

오는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선거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도 "처음 생기는 정당이고 정당에는 창업공신이 있으니 여러 가지를 고려해 공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교수는 선대위에서 김한길 상임위원장, 안철수-천정배 공동 위원장과 함께 이번 총선을 지휘하게 된다. 다만 김한길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 불참했다.

당초 지난 2일 국민의당 중앙당 창당때 참여 입장을 밝혔던 이 교수는 이후 공식 합류가 지연되며 관계이상설 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교수는 진보 색깔이 강한 정동영 전 의원의 합류에 우려를 표하며 합류를 재차 고민했으나 안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설득으로 최종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려한 바가 몇 가지 있었지

만 해소가 됐고, 안 대표가 저에게 몇 번씩 당부하는데 더 이상 (사양은) 도리가 아니어서 운명이려니 하고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정치가 어떻게 개혁돼야 할지 이론과 실천경험을 한국에서 어느 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진 보석같은 분"이라고 치켜세우며 "앞으로 이 교수 말씀을 적극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이 교수의 이날 합류로 진보 색채가 강한 정 전 의원의 국민의당 참여엔 '빨간불'이 켜졌다. 이 교수는 지난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비대위원으로 함께 일한 바 있는 보수 성향 인사다.

그는 대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역대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에는 모두 실패했다"며 "김대중 노무

현 정부의 햇볕정책, 포용정책도 많은 성과와 결실이 있었으나 북한 핵 개발 저지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선대위원 일부를 인선, 선대위 가동을 본격화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최고위 뒤 브리핑을 통해 현직 기초단체장인 한현택 대전 동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최고위원 전원이 선대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최고위원단은 주승용 원내대표와 장병완 정책위의장, 박주선·김성식·박주현·이준서 최고위원 등으로 구성됐고 현재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의 선임을 남겨두고 있다. 국민의당은 향후 선대위원을 추가 인선할 계획이다.

smith@news1.kr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18일 오후 전북 순창군 북흥면 정동영 전 의원의 임시거처를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는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국민의당에 조건 없이 합류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합류... "총선승리 위해 백의종군"

"국민의당에 조건 없이 합류해 백의종군하겠다"

(순창=뉴스1) 김대홍 기자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국민의당에 합류하기로 했다.

정동영 전 장관은 18일 오후 8시 30분 전북 순창군 북흥면을 찾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국민의당에 조건 없이 합류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장관과 안 상임 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정치현안 전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4개항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우리사회의 불평등해소와 개성공단의 부활 및 한반도 평화, 2017년 여

야 정권교체를 위해 조건없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두 사람의 만남을 계기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세력을 통해 우리사회 경제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 민생정치 구현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양당 기득권 담합체제를 깨지 못하면 한반도평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도 이루기 어렵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합의문 4번째 조항에서 정동영 전 장관은 국민의당에 합류해 총선승리와 호남진보정치의 복원을 위해 백의종군한다고 밝혔다.

95minkyo@news1.kr

'경찰 단톡방 어땜길래' 경찰청장까지 나섰나?

경찰, 카카오톡·밴드 등 SNS 활용한 업무 지시 일상화

(서울=뉴스1) 사건팀 = 사진과 동영상은 물론 문서파일까지 전송이 가능한 카카오톡과 밴드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경찰 조직도 업무에 이를 활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담당자가 형식을 갖춰 보고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상황 전파를 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팀장, 계장, 과장 등 직급별 단체방이 별도로 개설되다 보니 계급이 낮은 직원들은 밤낮 가릴 것 없이 응대를 해야 하는 피로감을 호소한다. 경찰 업무 특성상 보안사항이 실수로 다른 방에 유출될 위험성도 있다.

최근에는 한 지방 경찰 기동대의 선배 경찰관이 단체방에서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은 후배들을 향해 폭언·욕설을 하는 내용이 유출돼 인터넷 공간을 달구기도 했다.

뉴스1이 SNS 활용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공문·전화?…이제는 단체방에서 한 번에 신속하게!

주로 팀장급 이상 경찰관들은 SNS 활용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예를 들어 '4·13총선 기간 조직폭력배의 선거 개입 단속'이라는 지침에 따라 지시

사항이 각 경찰서로 전달되면 과거에는 다시 이를 공문으로 내려보내거나 전화로 전달했으나 이제는 SNS로 즉시 전파해 편리하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한 일선서 A 형사과장은 "업무에 많이 활용한다. 과장들과의 방, 서장이 포함된 방이 별도로 돌아갈 정도"라며 "공문으로 쓰기 애매한 사항 등을 SNS로 받아보니 업무적으로 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에게 지시사항이 있으면 나도 SNS를 사용한다. 50명한테 한 번에 이처럼 쉽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어땠겠냐"라며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같은 간단한 내용들은 한 번에 전달하고, 확인하는지 보면 되기에 다양한 SNS 채널을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업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다는 한 일선서 C형 사립장은 "예전에는 전화 받고, 돌리고 했던 걸 이제는 한 번에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지 않나. 얼마나 빠르고 좋아진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업무 사항을 누가 읽고 있지 않은지 확인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의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50대 형사팀장도 "공지사항을 모두가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SNS 단체방을 활용한다"고 했다.

그는 "물론 퇴근 이후에도 메시지가 올리는 게 피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찰은 늘 긴장감을 갖고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감안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불편하다고 해서 알람을 꺼버리는 등의 행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 "실수로 보내면 큰 타격, 휴일에도 이방·저방 '네'… 눈치만"

반면 업무 특성으로 인해 불편함을 토로하는 경찰관도 있다. 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과에서 근무하는 D(46) 경위는 "내부망이 아니어서 언제나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 쓰기는 편해도 엉뚱한 데 보내면 특히 정보과에는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집회 관리에 나갔던 한 경찰관이 상황전파를 직원들 단체방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내 수습하는데 애를 먹은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정 상황에만 잠시 상황전파를 위해 단체방을 개설했다가 종료되면 방을 폐쇄하고 모두 나온다"며 "이러면 유출 위험도 없고, 업무 종료 후 별도의 알림으로 스트레스를 주고받을 일이 없다"고 했다.

또다른 경찰서의 E 순경은 "위에서

내리는 지시사항에 일일이 대답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면서 "월 팬 쉬어야 하는데 시시각각 메시지가 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과장 방이 있으면, 그 아래 계급별 방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등 단체방이 너무 많다"라며 "가끔 방을 헛갈려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고 했다.

F 경사는 "휴일에 상사의 메시지가 오면 보기는 싫은데, 답장은 해야 할 것 같고 눈치를 보기 일쑤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직원들의 심경을 이해하는 상사들은 이에 SNS를 업무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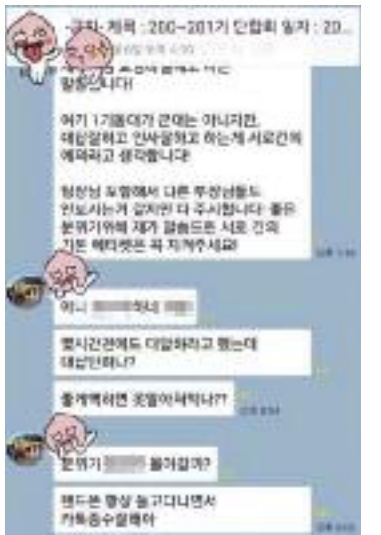
한 일선서 과장은 "예전과 달리 단체방을 통해 시시콜콜한 사항까지 지시사항으로 내려오니 일부 부담스러워하는 직원들도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부하직원과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으로도 쓰고 있다"고 전했다.

평소 SNS를 통한 소통을 강조하는 정용선 경기경찰청장은 "SNS는 신속한 현장보고 및 지휘, 유관 기능·관서 간 동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정 경기청장은 도내 주요 사건이 접수되면 SNS단체방에 해당 기능 간부 등을 불러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

정 경기청장은 최근 경기청에서 실시한 SNS 소통경찰 발대식에서도 "상사를 너무 어렵게 느끼면 경직돼 소통이 어렵다. 집안 형님이나 삼촌처럼 생각하고 가감 없이 현장의 어려움을 알려달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최근 내부 당부 사항을 통해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수시로 업무적인 내용이나 공지사항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각급 경찰관서에서는 직원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긍정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cho84@news1.kr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지도는 봄, 서울설렁탕의 봄, 국물, 보양, 두부와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0 Tel: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150 Cambridge St., Boston MA 02114 Tel: 617.573.8888 SeoulFoodBoston.com

Salons by JC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영미와 과녁의 손잡이, 머리끝을 북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탁 트리트먼트

2017년 1월 1일부터 H-Mart 앞 Middlesex Commons Mall에 위치한 Salons by JC로 이전

남자컷 25분/여자컷 30분/파마 70분 부터
디저트 130분 부터/가죽인 액자 220분 부터 시작합니다.

경리 양구경, 김영남, 미용실, 컷헤어, 머리, 미용실, 손내, 부천, 박준, 오온 스타일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675 Lowell St. Rm #1 Lexington MA 02420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oine Daveluy Parish of Boston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명절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둘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6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으로 권리와 기쁨의 터전입니다. (딤후 3:15)

주일예배 / 오후 8:00 금요기도회 / 저녁 7:30
유대/유지/초등/중고등부예배/청년부모임
Grace Bible Study / 수요일 7:30
D.C. 영대성경교실 / 주일 오후 4시

담임 목사 / 우시창
7 Clement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가나안 부동산
손득한
Broker/Owner of FRI
www.canbkr.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트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6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 son2323@gmail.com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101 King St. Boston, MA 02101
www.bostonfirstchurch.com

담임목사: 권종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NY State
New York Univ. MA
한양대학교 대학원
원가톨릭대학신학부교수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0시
주일 학교	오전 10시
전도인 공부	오전 11시
목회 공부	오전 11시
수요 예배	오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01 King St. Boston, MA 02101 Tel: (617) 695-0235, (617) 694-3404
www.boston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공고등부: 오후 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주일학교: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8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S Golf Teacher Federa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리그 프로
sj.usgtrf@gmail.com

857.600.6755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사이에 바로 안에 머무는 삶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께 헌신 교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진심, 존중, 신뢰, 사랑, 헌신, 부끄러움의 열매를 나누어 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청소년 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00
영양예배 주일오후 12:30
속죄예배 수-주일 속죄회
유배예배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3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cific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pacific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lex 2i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주 법인을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 2it UP SOLUTION은 POS 시스템, 고객결제 시스템 등
점포에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고객의 결제처리 편의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대표 시스템지식 판매원 **이선호**
781.266.7245

XOOM ENERGY SLP Inc. Xoom Partner

20~30%
전기요금에 National Grid와 Ameren보다
싸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에너지 규제 강화로 인해 전기와 천연가스, 재생 에너지를
XOOM Energy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XOOM Energy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 Reseller로 현재 미국 16개주에 있는
70만명에게 구급단에서 비즈니스와 개인주택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내용물
www.xoomenergy.com에
해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781.266.7245
한국어 상담: 이선호 지사장 / energy@slp-xoom.com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보스톤 북부지방에 정착한지 44년이 되는 박기식(Andrew Park)옹의 미수(米壽)와 정성구 여사와의 혼인 회년(60주년)에 즈음하여 조출한 행사와 친교의 장을 마련하여 여러분을 모십니다. 연로한 분들의 참석을 반깁니다.

신앙과 평화문제

강사:박한식

(조지아대 석좌교수, 전 재미 기독교학회장)

민족문제와 성경의 분부

강사:함성국 목사

(60년대 브루클라인 한인교회, 70년대 렉싱턴 감리교회 목회, 전 연세대 신학대학원장)

강연후 음악 공연 및 친교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시: 2016년 3월 6일 오후 5시-7시30분

장소: 북부 보스톤 한인 연합감리교회
244 Lowell St. Andover, MA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BOSTON-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이지나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파보나
변호사

Yael We
변호사

박계영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판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lw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패트리어츠가 오프시즌 동안 해야 할 일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2015 시즌에 수퍼볼 진출에 실패했지만 여전히 2016 시즌 수퍼볼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는 팀이다. 패트리어츠가 다시 한 번 수퍼볼 우승을 노려보기 위해서는 오프시즌 동안 중요한 일들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패트리어츠가 팀을 재정비하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자.

1. 제라드 메이요 방출

메이요는 한때 패트리어츠 수비의 핵심이자 리그에서 가장 활용 방법이 높은 인사이드 라인배커로 꼽혔다. 그러나 2014시즌 무릎 뼈를 다쳐 시즌을 마감한 이후 2015시즌에 복귀했지만 예전만 못한 모습을 보였다.

29세인 메이요는 아직 충분히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선수다. 그러나 계속되는 부상 탓인지 제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메이요를 불잡기 위해 패트리어츠가 2016년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1,140만 달러로 부담스러운 액수다. 메이요를 방출하고 생기는 여유 자금으로 젊은 선수들의 계약을 연장하거나 오픈스에 필요한 선수들을 보충해야 한다.

2. 마커스 캐넌과 브랜든 라펠 방출

패트리어츠의 오펜시브 태클인 캐넌은 오펜시브 라인의 커다란 구멍이다. 시즌 내내 불안했던 캐넌은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브롱코스 패스 러시의 가장 큰 타겟이었다. 쿼터백 탐 브래디가 번번히 바닥에 드러눕고 패트리어츠가 AFC 챔피언십 경기를 내준 데에는 캐넌의 역할이 컸다.

라펠 역시 몸값을 못하고 있는 선수다. 시즌 중 발을 다친 라펠은 복귀 후에 뚜렷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미 라펠은 키산 마틴에게도 자리를 내주고 패트리어츠의 와이드 리시버 차트에서 4번째에 위치해 있다.

3. 젊은 피 3인방 계약 연장

제이미 콜린스, 단테 하이타워, 그리고 찰스 존스는 패트리어츠 수비의 핵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라인배커인 콜린스는 NFL에서 신체 조건이 가장 좋은 선수로 꼽힐 만큼 강력한 파워와 빠른 스피드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선수다. 하이타워는 패트리어츠의 수비, 특히 러싱 수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다. 존스는 패트리어츠가 그토록 원하던 수준급의 패스 러서다.

3명의 선수 모두 2016년이 계약 루키 계약 마지막 해로, 2016 시즌이 끝나면 자유 계약 선수가 된다. 3선수 모두와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동



NFL 데뷔 이후 8시즌을 패트리어츠와 함께 한 제라드 메이요와 작별할 시간이 되었다

시에 3명의 선수 중 1명이라도 놓친다면 패트리어츠의 전력 누수는 상당할 것이다.

4. 베테랑 오펜시브 라인맨 수혈

2015 시즌 패트리어츠 최대의 약점은 오펜시브 라인이었다.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이 무너지며 수퍼볼 진출에

도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패트리어츠는 전통적으로 거액을 주고 자유 계약 선수를 영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디플릿게이트 때문에 2016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선택권을 박탈당한 패트리어츠는 자유 계약 선수를 통해서 오펜시브 라인을 보강해야 한다.

바로 경기에 투입할 수 있는, 동시에 패트리어츠 오펜시브 라인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 선수가 필요하다. 켈리치 오스멜 같은 선수가 오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몸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7백만 달러 선에서 선수를 찾아 봐야 한다.

jsi@bostonkorea.com

[MLB] ESPN "다저스, 류현진 복귀 희망...91승-지구 우승"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코리아몬스터' 류현진(29)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LA 다저스가 올 시즌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가장 강한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16일 2016 시즌 30개 구단의 전력을 평가하는 시리즈 기사의 마지막 편을 게재했다. 이 기사에는 6위부터 1위까지의 구단이 소개됐다.

다저스는 전체 6위,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는 가장 높은 전력으로 평가됐다.

매체는 "다저스는 오프시즌동안 잭 그레인키를 잃었지만 일본인 투수 마에다 켄타와 좌완 스캇 카즈미어 등을 영입했다"면서 특히 부상선수들의 복귀에 기대를 건다고 했다.

돌아올 선수의 리스트에 류현진도 포함됐다. ESPN은 "다저스는 어깨수술로 2015년 전체를 날린 류현진이 개막전에 맞춰 준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포수 야스마니 그랜달, 내야수 저스틴 터너, 엔리케 에르난데스, 외야수 야시엘 푸이그 등도 기대되는 복귀선수로 거론됐다.

불안 요소도 있다고 했다. ESPN은 클레이튼 커쇼가 하향세를 보일 가능성, 푸이그

의 재기 여부, 작 피터슨의 부진탈출, 34세가 되는 1루수 아드리안 곤잘레스의 활약 여부 등을 변수로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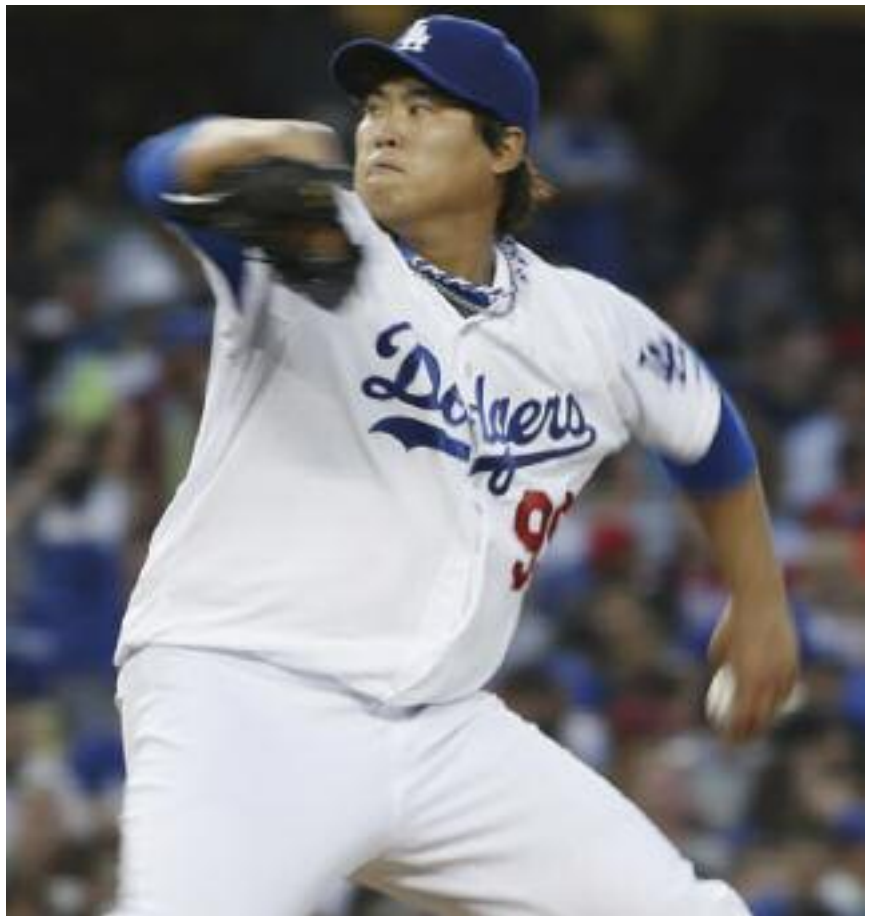
그러면서도 지구 라이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보다는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봤다.

매체는 "다저스는 2억4200만달러의 팀 연봉으로 전체 1위에 올라있지만 빅스타는 한 명(커쇼) 뿐이다. 하지만 코리 시거와 푸이그는 빅스타가 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훌리오 유리아스, 호세 데레온 등 젊은 선수들도 성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브 로버츠의 적응이 필요하지만 다저스는 그레인키의 유출에도 지구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SPN이 전망한 예상성적은 91승61패였다.

한편 이 랭킹의 1위는 시카고 컵스였다. 컵스는 유일하게 100승(62패) 이상이 예상된 팀이었다. 2위는 뉴욕 메츠(94승), 3위는 휴스턴 애스트로스(93승), 4위는 캔자스시티 로열스(92승), 5위는 토론토 블루제이스(91승)로, 모두 각 지구 우승이 예상되는 팀들이다.

starburyny@news1.kr



류현진(29·LA 다저스)

POS Pay

world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촌: A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촌: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a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NEWSTAR BOSTON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김광오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단독주택 Single Family



\$485,000
Sharon, MA
4 Beds, 2 Baths, 1940 sf.
완이업데이트 된집
Cul-de-sac, 좋은 로케이션
이현주 401-935-3397



\$595,0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436 sf.
새집보다 좋은 집
호수가 있고, 좋은 학교
이현주 401-935-3397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s, 3498 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739,000
Wellesley, MA
3 Beds, 2 Baths, 1656 sf.
Great Location!
조경한 주차환경, 좋은 학교
제스리 978-806-0023

콘도 Condo



\$275,000
North Andover, MA
2 Beds, 2 Baths, 1080 sf.
Top/Penthouse corner unit
Gina Choi 978-866-3248



\$325,000
Fra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1,800,000
Lexington, MA
5 beds, 4.5 baths, 3800 sf.
Custom built in 1991
Modern house 5000sf.
OT Kim 617-620-8242



\$519,000
Teversley, MA
4 beds, 2.5 baths, 2958 sf.
Cul-de-sac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콘도 Condominium



\$273,900
Maynard, MA
2 Beds, 1.5 Baths, 1930 sf.
four level 타운홈
Anna Jung 617-780-1675



\$217,000
Acton, MA
2 Beds, 1.5 Baths, 1303 sf.
New Roof, siding, HVAC system
신보경 508-361-6064



\$560,000
Boston, MA
1 Bed, 1 Bath, 709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Pre-Sale

Millennium Tower Boston
하이라이즈 콘도
2016 완공예정, 특사비 콘도
90% Pre-Sold
Boston, MA
다운타운 새 콘도
오피스 781-259-4989

Single Family

\$399,000
Malden, MA
5 Beds, 1.5 Baths, 1740 sf.
Shelly Yu 781-526-2416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Gina Choi 978-866-3248

Single Family

\$319,900
Maynard, MA
4 Beds, 2 Baths, 1579 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 sf.
Janice Lee 978-806-0023

Condo Rental

\$2,500
Boston, MA
1 Bed, 1 bath, 709 sf.
Jay Lee 781-654-5281

Condo Rental

\$1,600
Acton, MA
2 Bed, 1 bath, 820 sf.
Gina Choi 978-866-3248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국 최대의 부동산 그룹 / 2000년 개업 / 100만 명 이상의 고객 /
전국에 걸쳐 활동하며 / 100% 고객 만족 / 한국계 부동산 전문가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Sara You
617-899-356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OT Kim
617-620-8242

Nail Salon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70,000 Dedham, MA 1200sf. 넓은 주차 공간 6 manicure & 4 pedicure stations Anna Jung 617-780-1675	\$225,000 Boston, MA 5년된 큰 샌드위치 스토어 Great potential to grow Jay Lee 781-654-5281	\$915,000 Providence, RI Famous Restaurant w /Liquor 브라운대학 근처 이현주(Julie Lee)401-935-3397	\$500,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Business Consulting	Commercial	비즈니스 빈자리	Restaurant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S.J Park 617-304-7001	\$115,000 Boston, MA 보스턴 유니버시티 근처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Coin Laundry	Full Plant Drycleaner	Full Plant Drycleaner
			
\$499,900 Brookline, MA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475,000 Quincy, MA 10개월된 새 장비 매상 높음, 편리한 교통 이현주(Julie Lee)401-935-3397
Investment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995,000 Westford, MA Newly set up, Asian food SJ Park 617-304-7001	\$995,000 Westborough, MA Asian Restaurant/Bar SJ Park 617-304-7001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Full Plant Cleaner	Restaurant	APT Rental
\$495,000 Boston, MA Alot walk and car traffics SJ Park 617-304-7001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130,000 Cambridge, MA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Sue Rong Tsai 617-792-8842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서

-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지난 2월 7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성을 가장한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우리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 미 행정부는 강력한 무역, 경제 및 금융 제재를 포함한 광범위한 대북 제재 이행법안의 시행과 함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묵시하지 말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강력한 대북 압박에 동참하라
- 북한은 최근 잇따른 핵 및 미사일 도발이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단절을 가속화하여 체제 붕괴를 자초함을 깨닫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비핵화 결단을 내리고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유엔등 국제사회도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는 이러한 지속적인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이 단결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안보능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2월 13일

제 17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 회장한선우



규탄 성명 참여 단체 (무순)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톤 협의회/Korea War Veterans/보스톤 한인회/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뉴햄프셔 한인회/보스톤 이북 5도민회/보스톤 재향군인회/보스톤 한미노인회/뉴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
한국전 참전 국가 유공자회/해병 전우회/보스톤 나라 사랑회/재미한국학교 NE협의회/국제선 보스톤지회/KAUPA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턴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턴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턴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턴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턴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턴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입주해서 쌍둥이 돌봐주실 분 구함.
Hmart 근처, T. 323-204-7423
카톡 010-5263-0047 (1월 17일 이후)

한인식당에서 웨이츄레스/웨이터 풀타임/파트타임 구합니다
T. 781-424-2872 (청기와)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홈스테이, 룸렌트 스톤햄
93번 고속도로 3분 거리
T. 978-609-8749

N[매 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지압소
성업중인 가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김에게 연락주세요)
T. 864-605-7045

N[구 인]

플로리다지역 켄슨빌
교포환영, 숙소제공함
T. 770-712-3973

위치좋은 세탁소 매매



NATICK 다운타운에 위치한
세탁소(수선 포함) 매매합니다.
새로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

매매가격: \$63,000.00

Call: Renee Chakalos (Century 21)
617-256-5502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성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HAPPY 해피돌상



- 풍격을 더하는 화첩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지귀 케이크
- 국내산 유기견사와 천가,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다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응팔' 품은 '꽃보다 청춘', 역대급 레전드 예약할게요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응팔'과 '꽃보다 청춘'이 만났다. 조합만으로도 많은 이들을 설레게 하는 이들의 만남은 이미 레전드를 예약하고 있다.

18일 오후 1시30분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셀레나홀에서 열린 tvN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제작발표회에는 안재홍, 류준열, 박보검, 고경표와 나영석, 이진주 PD가 함께 했다.

안재홍, 류준열, 박보검, 고경표는 tvN '응답하라 1988'로 인해 단숨에 대중을 사로잡은 핫한 라이징스타들. 이들이 기획하는 프로그램마다 메가히트를 치는 나영석 사단과 만났다는 것으로 화제가 됐다.

나영석 PD는 "친구들이 굉장히 순수한 매력이 많다. 보다보면 '응팔' 속 모습이 많이 겹쳐진다. 보검이는 실제 택이같고 준열이는 정환이의 모습이 겹쳐진다"며 "'응팔'을 재밌게 봤다면 그 캐릭터 속 모습을 찾아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나영석 PD는 대세 배우들을 섭외한 배경에 대해 "'꽃보다 청춘' 2편을 연속으로 하려고 기획을 했다. 첫 팀은 아이슬란드로 가자로 기획했고, 두 번째는 누구와 어디를 갈지 정해지지 않았다. '응답하라' 팀이 같이 일했던 제작진이라 '친구들 몸값 비싸지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자'고 했다"며 "그러고 나서 '응팔' 1회를 봤다. 보고 다음날 바로 연락해서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다.

나영석 PD가 바로 섭외하고 싶었을 만큼 이들은 다양한 개성으로 무장했다. 안재홍은 만형이지만 스스로 리더가 아니라며 "만형이지만 이끌려다녔다. 보검이도 저를 이끌어줬다. 생긴건 오

프로드 동호회장 같지만 사실 이끌어 다녔다.준열이가 저희를 가장 잘 이끌어줬다"고 솔직하게 털어놨 웃음을 자아냈다.

고경표는 "나는 아프리카에 못 갈 거라고 생각했다. 그게 사실이 되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 그걸 인지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 그걸 인지하면서 굉장히 감정이 벅찼다. 감격이라기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다. 많이 치유받았다. 제게는 '꽃보다 청춘'이 방송을 떠나 치유제가 됐다"고 말했다.

막내로 여행에 합류한 박보검은 "형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바로 사고가 났다"며 "자꾸 사고만 쳐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다들 잘 챙겨주셔서 예뻐해주셨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꽃보다 청춘' 제작진은 아프리카로 여행지를 선택한 것에 대해 배우들과 흡사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김대주 작가는 "아프리카를 처음부터 염두에 뒀던 건 아니다 많은 나라를 찾아보며 이 친구들에게 어울리는 장소를 찾았다"며 "드라마가 잘 돼서 누구나 아는 배우들이지만 실제 모습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아프리카 역시 다들 아는 나라지만 여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이번 여행을 통해 아프리카와 이 친구들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꽃보다 청춘'은 올 한해 뜨겁게 사랑받았던 드라마 '응팔'과의 콜라보로 시너지를 높일 것을 예고했다. 드라마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배우들이 자연인으로서 다가올 때 시청자들은 빠져들 수 밖에 없을 듯하다.

reddgreen35@news1.kr

'동주' 강하늘X박정민 그린 미완의 청춘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동주' 강하늘과 박정민이 각각 윤동주와 송몽규로 스크린을 빛냈다. 윤동주와 송몽규의 비록 짧지만 찬란했던 청춘이 스크린을 통해 가슴 먹먹한 여운을 남겼다. 이준익 감독이 강조했던, 과정은 보잘 것 없으나 결과로 기억되는 윤동주와 과정은 훌륭하지만 결과가 기억되지 않은 송몽규의 삶이 고스란히 스크린에 담겼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장충동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영화 '동주'(감독 이준익) 언론시사회가 열렸다. '동주'는 이름도, 언어도, 꿈도 허락되지 않았던 1945년, 평생의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시인 윤동주와 독립운동가 송몽규(박정민 분)의 빛나던 청춘을 담은 이야기다. '왕의 남자'와 '사도'의 이준익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이날 강하늘은 최초의 윤동주 영화에 도전하며 느꼈던 부담감이 상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감히 윤동주 선생님을 연기하는 것 자체가 중압감, 압박감, 긴장감의 연속이었다"며 "대본이 가장 좋았던 건 내 속에 만들어진 윤동주라는 시인에 대한 환상이 소박하게 바뀌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동주'는 흑백 영화로 만들어졌다. 윤동주 시인의 흑백 사진의 느낌을 되살리고 막대한 제작 비용을 줄이기 위해 흑백 영화로 제작됐다. 그는 "흑백 영화를 보니 다른 것에 시선이 안가고 인물에 시선이 가더라. 눈썹, 눈, 입술 움직이는게 컬러보다 눈에 잘 띈다"면서 "흑백 영화 장점은 내 마음대로 색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aluem_chang@news1.kr



'동네변호사 조들호', 4인4색 법정공방전

(서울=뉴스1스타) 백초현 기자 = 배우 박신양과 강소라, 류수영, 박솔미가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 제대로 맞붙는다.

오는 3월 첫 방송되는 KBS2 새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극본 이향희/연출 이정섭)에는 믿고 보는 연기력을 기본이고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4명의 배우들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을 예고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극 중 어디로 뿔지 모르는 럭비공 동네 변호사 조들호 역의 박신양과 자수성가형 당돌 커리어우먼 이은조 역의 강소라, 여기에 범 죄증오자 검사 신지욱 역의 류수영과 적수 없는 승부욕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장해경 역의 박솔미는 캐스팅 소식만으로도 기대를 모으며 이들이 선보일 4인4색 케미에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법정에서 승부를 내거는 검사

와 변호사로 등장하는 만큼 네 사람이 어떤 관계로 얹히고설켜 대립하고 화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여타 법정드라마와는 달리 보다 친근하고 이색적인 캐릭터들과 흥미로운 인물 관계도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박신양, 강소라, 류수영, 박솔미가 갖춰 입은 캐릭터의 맵시는 과연 어떠할지 역시 놓쳐서는 안될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각 캐릭터와 최적적의 싱크로율을 갖춘 박신양, 강소라, 류수영, 박솔미 역시 서로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크다"며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케미와 호흡의 시너지를 맛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했다.

poolchoya@news1.kr



'국가대표', 쫄깃한 '국방'이 온다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국가대표'가 신개념 '국방'을 예고했다. 셰프들의 승부를 주 콘셉트로 해 긴장감 넘치는 '국방'을 선보일 예정이다. 쫄깃한 승부의 세계를 펼친 '국가대표'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7일 밤 10시50분 첫 방송되는 JTBC'국가대표'는 국내 최고 셰프들이 세계를 향해 출사표를 던지는 '푸드 도장 깨기' 버라이어티다. 홍콩편에는 이연복, 최현석, 샘킴, 이원일 셰프가 참여해 기대감을 높였다. 국내 유명 셰프들이 세계 유명 셰프들과 대결을 펼친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기대는 높다.

최근 '국방', '떡방' 등 요리 프로그램이 전성기를 맞으며 많은 셰프들이 방송 출연을 했고, '셰프데이 나'로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들의 실력이 검증됨과 동시에 세계의 요리 문화까지 동시 체험 가능하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다.

연출을 맡은 이창우 PD는 앞서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해외 올로케 푸드 도장깨기 버라이어티다. 세계 최고 고수를 찾아가서 그들의 흠에서 국제 요리대결을 펼치는 '국방'의 확장판"이라며 "저희 프로그램은 '냉부해'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형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형만큼만 했으면 좋겠다"고 소개했다.

'국가대표'의 이연복, 최현석, 샘킴, 이원일 셰프군단이 대결을 통해 짜릿한 긴장감을 선사한다면 MC



강호동, 김성주, 안정환은 스포츠 중계를 하듯 대결 중계를 통해 또 다른 재미를 보여준다.

김성주는 "저는 긴장감 풀어주는 사람 아닌 고조시키는 사람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승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강호동은 "프로그램 최고 관전 포인트는 김성주, 안정환의 케미다. 정말 정평이 난대로 대단하더라"라며 "여기서 저의 건강하고 씩씩한 양념이 가해져 좋은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정환은 "어릴 때부터 태극마크를 다는 게 꿈이었다. 셰프들과 태극마크를 달고 요리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다. 선수 때 느꼈던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서 셰프들이 편안하게 요리에 임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강 셰프군단과 물 만난 예능감으로 비상 중인 MC군단이 만난 '국가대표' 요리 실력도, 예능감도 국가대표 급인 이들의 만남이 '국방'과 어떤 조화를 이룰지 기대가 모아진다.

reddgreen35@news1.kr



'태양의 후예' D-258 메이킹 예고

(서울=뉴스1스타) 백초현 기자 = '태양의 후예' 메이킹 예고 영상이 공개됐다.

15일 KBS2 새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극본 김은숙 김원석/연출 이응복 백상훈) 측이 공개한 메이킹 예고편에는 지난해 첫 촬영을 시작해 그리스 로케이션을 포함, 모든 분량을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제작진 및 배우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태양의 후예'는 기존 드라마 시스템과는 달리 프리프로덕션을 제외하고 실제로 제작에 들어간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이에 그만큼의 완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작진은 "그만큼 디테일하게 공을 들여 촬영했다. 사전제작이 아니었다면 드라마에서 구현하지 못했을 장면들도 있다. 시청자들에게 퀄리티가 높아진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태양의 후예'는 우르클라는 낯선 땅에 파병된 군인과 의사들을 통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휴먼 멜로 드라마다. 배우 송중기, 송혜교, 진구, 김지원 등이 출연하며 오는 24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poolchoya@news1.kr

김숙 손길에 윤정수 경악, "고소하겠다"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지난 해 방송에서 김숙은 걸그룹 AOA의 히트곡 '사뿐사뿐'에 맞춰 애교 댄스를 선보였다. 윤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피했다.

이후 분위기를 바꾼 달콤한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선곡한 김숙에게 윤정수는 "너 설마 나랑 달달한 거 생각하

느냐"며 실소를 했다.

윤정수는 김숙의 손이 뺨에 닿자마자 "무슨 짓이냐. 고소하겠다"며 정색했고 "이런 짓을 해도 되는지 보고오라"며 최초가상 결혼에 동의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재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star@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Sales Representative Wanted

True World FOODS

Japanese Food Wholesaler needs a full time sales rep to maintain and expand restaurant accounts in the Greater Boston area.

Qualifications:

- Able to speak English
- Able to speak Korean, preferred
- Able to be respectful to customers, co-workers and management
- Competent driver with valid driver's license
- Good office skills including computer literacy
- Able to pass a drug screen
- Able to lift heavy product items from time to time weighing as much as 50 lbs.
- Familiar with the restaurant business and/or wholesale food business

To apply please send your resume to:
True World Foods Boston c/o 스티브 김,
22 Foodmart Road, Boston, MA 02118.
Or email to stevekim@trueworldfoods.com
Tel: 617-596-1377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R.A. & N.Y.) • B04488 • GGT • LMS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풍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seon@bostonpremierrealty.com

리스팅

1. Full Plant 플리너 : 핵심권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9k**
2. Full Plant 세팍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3. Full Plant 세팍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4.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5.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6. 드롭오프 스토어 : 알링턴 메인스트리트에 위치. 년 매출 5만~7만. Asking **\$20,000**
7. 세팍소 : 보스턴 북부인근. Asking **\$150,000**
8. 보스턴 인근 일식식당 : 좋은 위치. Beer and wine 라이선스 포함. Asking **\$225,000**
9. Single family in Danvers : 4Bed 2 and 1/2 Bath, 2,620 s.f, 2 car garage, 좋은 위치. Asking **\$550,000**
10.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4 Bed 2 Bath, 1,800 s.f. 큰 공간, 2대 주차공간, 좋은 위치, 최상의 학군, Rt 9 인접, 근처 Chestnut Hill 쇼핑몰과 물과 뒷분거리에 위치함. **\$3,400**
11. 렌트 : 1776 Commonwealth ave, #2, Brighton, 4 Bed 2 Bath 2,379sf 허털, Hot Water 1대 주차공간 포함. **\$3,950**
12. 렌트 : 1731 Beacon st Unit 113 Brookline 2bed 1 bath 1 garage parking, heating, hot water included. **\$2,9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34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회자정리 거자팔반(會者定離 去者必返)

만남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고,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의 회자정리 거자팔반(會者定離 去者必返)은 중년에 든 이들은 많이 들어봤을 옛 어른들의 말씀이다. 그렇다, 우리는 만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다 보니 헤어지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다. 아니, 어쩌면 영영 헤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산다. 물론 만나서 헤어질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어찌 그 만남이 오래도록 유지가 되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모두 서로 헤어질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헤어짐과 이별이 두려워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 밀어내는 것일 뿐이다.

지난 1월 말, 보스톤산악회의 조출한 신년회가 있었는데 신년회를 시작하며 부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그 축사 중에는 '회자정리 거자팔반'의 얘기가 들어있었다. 자리에 앉아 축사를 듣던 산악회 회원들이 큰 감명을 받았다. 그 길지 않은 축사의 시간은 산을 오르는 듯 고요함과 함께 숙연함마저 들게 했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을 한다. 그 어떤 모임이라 할지라도 인원의 수가 많아야 번창하는 것 같고 수가 적으면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느낌들 말이다. 더욱이 책임자

의 자리에 있다면 더욱 그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가는 흐름일 뿐이다. 그 어떤 걱정과 염려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조급하게 초조해야 할 일은 더욱이 아닌 것이다. 자연의 법칙 또는 현상이듯 썰물처럼 우르르 사람이 모여들고 밀물처럼 우르르 썰려가듯이 그저 현상일 뿐이다. 그 현상에 우리의 마음만이 과도처럼 철썩거릴 뿐이지, 그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별히 산이라는 그 어떤 자연을 놓고 본다면 더욱이 그렇지 않겠는가. 산은 언제나 그곳에 말없이 있으니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오를 뿐이고 내려올 뿐이다. 그렇게 오고 가는 길목에서 서로 만난 인연에 감사하고 고마움을 나눌 뿐이다.

가끔 생각해보지만, 무엇에서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로 내게 다가온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하지 않던가.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그 어떤 일이 되었던 간에 그렇다. 마음 안의 생각과 마음 밖의 행동은 어찌 이리도 힘든지 말이다. 무엇인가 나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을 해놓고도 마음이 수선스러운 것은 아직도 살아온 날에 비해 생각의 깊

이가 얇은 까닭인 게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고 또 아니라고 우겨도 그 마음 안에는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게 분명 하다. 그래서 마음을 준 사람이나 기대에 찬 사람에게는 은근히 무엇인가 바라는가 싶다.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이 바램을 놓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나 자신이 그 어떤 대상을 움켜쥐고 가둬두는 순간 바로 상대가 아닌 내가 그 자리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흐르는 물을 어찌 막을 수 있겠으며, 떠도는 구름을, 바람을 어찌 잡을 수가 있겠는가. 흐르면 흐르는 대로 떠돌면 떠도는 대로 가만히 놔두고 바라보면 그만인 것을 말이다. 그렇게 저렇게 흐르고 떠돌다 때가 되면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면서 엮어지는 것이 우리네 삶이 아니겠는가. 그 무엇을 잡으려 애쓰지 말고 정작 내 마음을 잡아야 하거늘.

어찌 보면 우리도 자연의 한 일부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일이다. 자연과 더불어 함께 호흡하고 상생하며 공존 공생하는 까닭이다. 자연을 보면서 더욱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겸허해지고 숙연해지는 마음은 바로 서

로 호흡하는 이유일 게다. 그토록 장엄하고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주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를 만나는 까닭이다. 그 자연 속에서 창조주인 신(神)을 만나고 그 속에서 너무도 작고 나약한 피조물인 나를 만나는 이유이다. 이렇듯 본질의 것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면 작은 것들에 대한 불필요한 욕심이나 포장으로 쌓인 허상들을 하나둘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나를 제대로 보고 만나려면 나 밖의 나를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다. 내 안에서 제아무리 나를 들여다보려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나 자신이 나를 제일 모르는 까닭이다. 나 자신을 자연의 한 일부분으로 놓고 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을 잡고 있었던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것으로부터의 시작은 객관적인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마음의 눈이 떠져 해안이 열리는 까닭이다. 이렇듯 자연과 하나가 되어 호흡하며 느낄 수 있다면 인간관계 속 작은 부질 없는 것들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고 만남과 헤어짐에서 조금은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질 것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예보豫報의 역설逆說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건, '운수좋은 날' 중에서)

일기예보는 언제고 과장되는지도 모르겠다. 과장된 예보였다면 예보가 틀렸다고, 크게 나 무라지 않는다. 대신 예측하지 못했고, 예보하지 못한 눈사태라도 왔다 치자. 그렇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모두 아우성일 게고,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 조금은 과장해서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예비한다고 나쁠 것까지는 없다.

어느 사회학자가 말했다. 사회학에서 예측이 맞는다면, 그건 이미 사회학의 본질을 잃은 거란다. 이 말에 동의한다. 어차피 예측과 예언은 틀려야 정상일 게다. 예측은 들어 맞지 않아야 예측인 게다. 예측이 모두 맞는다면 이미 학문이 아닐 게다. 이런 걸 역설이라 하던가. 자연과 학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측대로 모든 실험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날씨가 예보대로 따라 주

지 않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예측과 예언과 예상은 서로 다르기는 하다.

그래도 너무 했다. 경기景氣가 좋아질 거라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한 듯 싶다. 경기에 적신호가 울린다는 소리밖에 못들은 것 같다. 언제 호황이 될 거라는 말을 들었던가. 만약 그런 예상이라면 신문엔 한 구석 일단 기사로 처리될지도 모른다. 언론은 호들갑이어야 장사가 된다. 무조건 팔린다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게다.

설날이 지났다. 음력으로 정월이 시작된 거다. 새해가 되었으니, 토정비결이며 일 년 운세를 점치기도 한다. 점수를 보는데 생년월일과 시간을 묻는다. 음력으로 물어보는 건 당연하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미국시간을 한국시간으로 바꿔야 하나? 그건 궁금하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고린도 전서 14:32)

폭설이 내릴 거라 했다. 강풍도 동반한다 했다. 단단히 준비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천운인지, 예보가 과장되었던가. 눈은 내렸으나 폭설은 아니었다. 바람은 불었으니 미풍微風에 그쳤다. 지난 폭설(?)에 모두 안녕하신지.

오래 전 이야기이다. 미아리 점쟁이 집이란 다. 임신한 젊은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들어섰다. 점쟁이 앞에 앉았다. 한 번 흘끗 쳐다본 점쟁이가 하는 말. '팔이야.' 실망한 시어머니는 당연히 땅이 꺼져라 한숨이다. 그렇다고 점쟁이들이 뭘 알고 그러는 건 아니란다. 신내림은 쉽지만은 않을 터. 생계형 점쟁이들이 무조건 딸이라고 말해준다는 거다. 그러다

가 아들을 낳는다면 기쁠 게다. 점쟁이가 한 말을 곧 잊는 건 당연하다. 딸이라 하더니, 왜 아들이냐고 따지려 가지 않는다. 딸을 낳는다면 씩씩할텐데, 그저 점쟁이 잘 맞추네 한다는 거다. 아무튼 아들 아니면 딸이다. 요새는 점쟁이들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점을 볼지도 모르겠다. IT로 무장한 점쟁이들도 있을터.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덧붙여 하는 말이다. '아가야, 네 잘못이 아니다.' 네 탓이란 말보다 더하다. 며느리 역장이 무너지는 소설 '운수 좋은 날'의 마지막 구절이다.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현진





TASTE THE NORWEGIAN DIFFERENCE

노르웨이 수산물의 차별화된 맛!

Experience Mackerel and Salmon
from the Cold, Clear Waters of Norway

JOIN US AT
Burlington, MA Hmart
3 Old Concord Rd

2/26 - 2/28
10 AM - 7 PM

고등어 1+1 행사

노르웨이 고등어 1마리를 사시면 1마리를 무료로 드립니다

Buy one Norwegian Mackerel,
get one FREE*



*While supplies last. Limit 5 per customer.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1. 리틀 빅혼 강 전투와 카스터 (3)

시팅불과 크레이지 호스에 의한 카스터 부대의 전멸 (계속)

벤틴은 말발굽 형태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매우 침착하게 전투를 지휘하여 이튿날까지 지속된 인디언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일 기본과 테리의 연합 부대가 전투현장에 도착하여 리노와 벤틴의 부대를 구조하였다. 이 전투에서 미군측은 268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인디언 측 피해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보면 최소 36명에서 최대 136명의 전사자와 약 16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스터의 마지막 저항 장면(Custer's Last Stand Hill)〉

카스터가 긴급구원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벤틴이 신속하게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은 데에 대하여 뒤에 논란이 제기되었다. 1868년 11월 27일에 있었던 와시타 강 전투에서 벤틴의 친구인 엘리엇 소령의 부대가 인디언에게 전멸 당할 수도 있는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때 이른 후퇴를 해버려서 그 부대원이 몰살당했던 일에 대한 양심증언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벤틴은 당시의 상황 하에서는 당장 후퇴해온 리노의 부대와 연합하여 인디언의 공격을 막아내는 게 더 시급했으며, 약간 정신이 멍해진 리노를 대신하여 모든 부대원 전원을 통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매우 침착하게 처신하였을 뿐이라고 해명하였다.

미군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수많은 사상자를 낸 패전의 책임자인 카스터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1876년 9월 2일자 New York Herald 신문에 의하면 ‘카스터의 학살은 정말로 불필요한 부대원들의 희생’ 이라고 군 출신인 그랜트 대통령이 말했다고 한다. 웨리든 장군 역시 카스터의 무모한 행동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그를 비난하였다. 웨리든은 카스터의 패배 원인으로 몇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테리 장군이 제 2기병대를 추가로 작전에 투입시켜 주겠다고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7기병대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둘째, 대포도 같이 가져가지 않고 군도도 휴대하지 않았다. 대포와 함께 갈 경우에는 행군속도가 느려져 신속한 작전수행에 지장이 많다고 생각하여 카스터는 기병대만으로 공격할 것을 주장하였다. 셋째 인디언 전사의 수가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카스터의 기병대를 세 개의 소부대로 나누어 공격하였다.

미군측은 처음부터 적대적 인디언들의 인원수에 관하여 크게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인디언 주재관들(In-

dian agents)은 미국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고 거주지역 바깥에서 계속생활하고 있는 인디언 숫자는 약 800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크록, 기본, 그리고 테리도 이 추정치를 공유하여 군사작전을 짰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거주지역을 빠져나와 적대적 인디언 캠프에 머물고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인디언을 빠뜨리는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카스터의 부대가 인디언 마을에 가까이 오면서 인디언 정찰병들이 앞서서 인디언 마을을 정탐한 결과 지금까지 봐 왔던 인디언 마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캠프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곧장 카스터



〈카스터 장군 부부〉

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과욕은 필시 화를 불러오기 마련이라 카스터는 이 점을 간과하고 당초의 작전 계획을 밀어붙였다가 큰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카스터의 행동을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그러한 지형에서의 전투에는 대포를 운반한다는 것이 큰 짐이 되기 때문에 대포와 함께 가지 않은 것은 실수가 아니며, 리노와 벤틴의 부대로부터 적기에 지원을 받았더라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카스터의 최대 옹호자는 그의 부인 Elizabeth Bacon Custer 여사이었다. 카스터의 참패 이후 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널리 확산되어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지켜본 카스터의 미망인이 카스터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섰다. 그녀는 카스터에 관련된 책을 세 권이나 출판하였으며 전국을 돌며 연설을 통하여 카스터의 행동은 정당하였으며 미국을 위해 목숨을 마친 순교자와 같은 참군인이었음을 역설하고 다녔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카스터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저술과 강연 등으로 재산도 축적할 수 있게 되어 뉴욕의 비싼 집에서 우아하게 살다가 1933년 4월 4일 91회 생일을 나흘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죽기 몇 년 전에 카스터 성을 가진 자식이 없는 점을 제일 아쉬워한다고 이야기했다. 카스트는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시절 앓았던 임질로 인하여 불임이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카스터는 나의 영웅 중 한 사람’ 이라고 쓰여 있는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의 편지를 보물처럼 간직했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18 화랑세기花郎世紀, 1세 풍월주風月主 위화랑魏花郎(6)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혼인 후 배우자를 제외한 타인과의 성관계는 범법행위였다.

지난 62년간 유지된 이 법으로 인하여 세간에서는 많은 유명인들이 사생활의 침해를 당하면서 간통죄인이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평생을 살아야 했다. 하지만 현대로 들어와서 거의 사문화가 되어버린 간통죄를 처벌하는 이 형법을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을 선고하였다. 165) 여기서 1953년과 2015년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1953년에는 국민들의 특히 기혼자의 성생활과 성의식이 과거와 판이하여 문란한 성관계를 방지하여 사회적인 타락을 예방하고 또한 가족공동체의 해체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의 불행을 초래할 것을 염려하여 제정하였다. 그럼 그 후로부터 2015년 까지의 현실은 그 법으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자신의 배우자하고만 성관계를 하는 ‘잉꼬부부’가 되었는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의 위헌판결 요지와 사회의 성문화는 그렇지 않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요지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침해이다. 즉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것이 위헌판결을 한 재판관들의 변이다. 또한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고, 비도덕적이지만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지 않으면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혼의 상간자를 똑 같이 처벌하는 법은 형벌의 과잉행사이며, 이미 사문서가 되어버린 이 법의 역효과는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 많은 국민들의 성생활은 이미 법의 영역을 떠나서 사음계邪淫戒(음탕한 짓을 하지 말라는 불교의 계율)를 위반한 지는 이미 오래이며, 생활문화 속에서 직, 간접적으로 공급되는 유흥문화는 색계色界를 더욱 조장하거나 염착念着166) 하게 한다. 성적인 지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생활이기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와 1,500여년 전의 신라인들과의 성의식은 과연 얼마나 다를까? 당시는 성에 관하여 개방된 사회였기에 문란해 보였고, 현재는 상대적으로 당사자와만 아는 폐쇄적인 형태이기에 다만 도덕적으로 고결해 보이는 것이 아닐까?167)

164) 형법 제241조(간통) 1항,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2항,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

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참고로 1905년 4월 20일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265조)은 간통한 유부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고,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조선형사령도 간통한 유부녀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였다.

165)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형법 제241조(간통)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7명의 재판관(박한철, 이진성, 김창중, 서기석, 조용호, 김이수, 강일원)은 위헌으로 2명의 재판관(이정미, 안창호)은 합헌으로 의견을 내면서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241조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166) 망령된 생각으로 인하여 나타난 대상을 실제로 알고 집착하는 일이라는 불교 용어인데 여기서는 보고 듣고 느끼는 사회적인 영향으로 썼다.

167) 배동환은 1975년부터 25년간 미국에 살면서 800여명의 여성과 성관계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1년 ‘오 마이 섹스’라는 책을 펴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混 (혼)

“자, 우리 (성삼위 일체)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混雜)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Come, let us (the Holy Trinity) go down and confuse their language so they will not understand each other.” - 창세기 11:7.



“기존 방식과 선의(善意)로는 북한 정권의 핵(核)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대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회담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 라 했다.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집권 3년 만에 대북 정책을 강그리 바꾸겠다는 선언이랄 수도 있다.

‘체제 붕괴’ 라는 표현까지 쓰며 “북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찾겠다” 는 강경한 어조에서 박 대통령의 결심을 짐작케 했다.

박 대통령이 3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처럼 협력과 지원에만 치우친 대북정책을 밀어붙였던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신뢰구축을 통해 대북정책을 추진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현신을 깨달은 것은 다행이다. 늦긴 했어도…….

북이 핵실험, 미사일을 쏘셔도 책임을 묻지 않은 것도 사실.

책임 추궁은 유엔(UN)을 통해 국제제재에 맡겼고 그 제재가 용두사미가 된 것을 지켜보기만 해 왔었다.

불과 한 달여 전에 북한이 4차 핵실험 후 박 대통령이 발표했던 담화도 변화를 불러오기 힘들었던 것.

이같이 소극적 반응이 반복되면서 한국은 핵 불감증과 이에 의한 무기력증이 확산되기

만 했다.

이에 대해 박대통령이 이번에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실천에 옮기겠다는 다짐은 대북 핵 무기력증에서 탈피하겠다는 각오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할 것이다. 그럴 때 마다 한국 사회 내부는 요동 칠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

뿐만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한 핵미사일 대책이 큰 변수다.

북한 핵 미사일을 막기 위해 한미 간에는 의 중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 인터넷에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에 노출되면 뇌종양과 백혈병이 생긴다”, “내장기관이 과열되고 몸이 녹아버린다”, “미국이 해외에선 미군 없는 지역에만 사드를 배치했다” 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사드와 같이 미사일을 잡는 레이더의 전자파는 직진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예 닿지도 않는다.

공중도 5~90도 사이의 5.5km 영역에서만 전자간섭이 있다.

미국은 텍사스와 괌, 일본의 아오모리 현 등에 사드를 배치했지만 아직 피해는 보고 된 적이 없다.

사드 배치 거론 지역에서는 국회의원과 시장이 앞장서서 “우리 지역엔 안된다” 며 ‘사드 님비 (Nimby = Not In My Back Yard) 현상까지 벌린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친다. 야당이 아닌 여당의원, 여당시장들까지 사드님비 (THAAD-NIMBY)에 가세하는 상황.

괴담과 싸우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지도자들까지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친다.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실질적 방어체계가 없다. 사실상 무방비.

그래서 주한미군이 들어오는 것이 사드(THAAD)다.

하지만 북 미사일을 다 막기엔 아직 힘이 모자란다.

이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한국에선 일부라고해도 위기의식 보단 괴담을 퍼뜨리고 “내 지역은 안 된다”고 이기적인 자기 방위에만 급급하다.

미군이 지켜준 60여년의 세월동안 안보가 내일 (My Duty), 우리 일 (Our Duty)이 아닌 ‘남의 일’ 이 돼 버렸나?

개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여론이 치솟지 않을까? 이런 사회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인류 역사의 혼(混)란이기도 하다.

混 혼 : ① 雜野 (잡 야, 섞일 혼) ② 西戎 | 夷 (서용신이) - 서녘 오랑캐 곧. 두 가지로 발음 된다.

이 ‘혼’ 또는 ‘곤’ 으로 발음되는 混자는 ① 물 (氵=水) ② 해 또는 날짜를, 곧 시간을 측정하는 날(日), 그리고 ③ 비교할 비(比) 또는 차례 순서를 표하는 세 부분으로 짜인 글자.

물은 아시다 시피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를 상징한다.

“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 요한복음 4:14.

다음은 해(日). “사랑하는 자들이 주(主)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But do not forget this

one thing, dear friends; with the Lord a day is like a thousand years, and a thousand years are like a day.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 The Lord is not slow to keeping His promise, as some understand slowness. He is patient with you, not wanting anyone to perish, but everyone to come to repentance. - 베드로 후서 3:8,9.

마지막으로 비교한다는 뜻의 比는 “너희가 나 (하나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比較)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 To whom will you compare Me or count Me equal? To whom will you liken Me that we may be compared?” - 이사야 46:5.

하나님 삼위일체의 전능(全能)하심은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

해서 混은 문자 그대로 ①물과 ②빛과 ③그리고 비교의 혼란으로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 삼위 (三位)의 가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혼란(混亂)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백하고 분명히 단언하셨다.

“살리는 것은 영(靈)이니 육(肉)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 “The Spirit gives life; His flesh counts for nothing.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 요한복음 6:63.

이 말씀을 증언(證言)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스스로 증거하셨다.

混이 없었으면 이 진리의 말씀이 반사(反射)되었을까?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Arirang NEWS CHANNEL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19)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1987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여기저기서 폭락하는 주식시장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다투 존스가 하루에 폭락한 수치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것이 블랙 먼데이(Black Monday)로 알려지게 됩니다. 경험해 본 투자자만이 느낄 수 있는 무서운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 년이 조금 지난 후, 다투 존스는 제자리로 회복되었습니다.

2000년 초입니다. 인터넷이 주식시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회사 이름에 닷컴(dot-com)이 포함되면 주식가격은 무조건 상승했습니다. 누구나 주식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투자하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3월에 최고점을 찍고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주를 제외한 경비가 적은 인덱스 펀드는 천천히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2008년 여름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침체기(re-

cession)가 시작된 것입니다. 은퇴를 계획했던 사람들이나 투자자는 불안하지만 잠시 기다려 보자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2009년 3월에는 주식이 반 토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투자자가 주식시장 변화에 상관없이 꾸준히 투자했다면, 시장이 폭락한 후 7년(2009~2015) 동안 매년 수익률 15%씩 받았습니.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3주 만에 주식시장이 약 10% 하락했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투자자는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미디어는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 예측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식시장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투자자산 손실보다도 매우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일입니다. (“If you believe the stock market may not come back this time, then you have much more to worry about than your in-

vestment portfolio.” - Rick Ferri.) 주식시장이 1987, 2000, 2008 무섭게 폭락했지만 결국에는 다 회복되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돌아켜 볼 때 어떠한 각도로 보든지 다른 투자 종목과 비교해서 월등한 수익률을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익률을 받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면 때때로 투자가 하락하는 두려운 경험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식투자는 오름과 내림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어떤 시점에는 조정(corrections)과 침체(bear market)기를 피할 수 없는데 이것이 주식투자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락하는 주식시장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하락한 폭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1987년 주식시장부터 살펴봅시다.

8/87-12/87, 3개월, 34% 하락 그리고 12/87-7/90, 31개월, 65% 상승

7/90-10/90, 3개월, 20% 하락 그리고 10/90-3/00, 114개월, 155% 상승

3/00-10/02, 31개월, 49% 하락 그리고 10/02-10/07, 60개월, 99% 상승

10/07-3/09, 17개월, 52% 하락 그리고 3/09-9/14, 67개월, 168% 상승

또 3/09-12/15, 82개월 178% 상승 그리고 최근 주식시장 하락(?)

하락하는 시장에서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하는 주식시장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행동으로 실행하면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 집니다. 일반 투자자는 투자 종목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각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락하는 주식시장은 오히려 투자자에게 좋은 투자 기회가 됩니다. 가격이 저렴할 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비가 저렴한 인덱스 펀드를 이용하여 자산분배와 분산투자가 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폭락하는 주식시장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제대로 형성된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서울메디케어
서울메디케어는 강남역 1000m에 위치한 최첨단 의료 시설과 최상급 의료 장비로 구성된 의료 서비스입니다.

구분	일일	3일	7일
숙박비	4,500원	13,500원	39,000원
대입비	18,000원	54,000원	153,000원
총비용	22,500원	67,500원	192,000원



투트모밥 이식센터
6명대 모발이식 전문의료진
4명대 모발이식 전문수술실

구분	일일	3일	7일
숙박비	4,500원	13,500원	39,000원
대입비	18,000원	54,000원	153,000원
총비용	22,500원	67,500원	192,000원



세미치과
특별할인

구분	일일	3일	7일
숙박비	4,500원	13,500원	39,000원
대입비	18,000원	54,000원	153,000원
총비용	22,500원	67,500원	192,000원



에히고
특별할인

구분	일일	3일	7일
숙박비	4,500원	13,500원	39,000원
대입비	18,000원	54,000원	153,000원
총비용	22,500원	67,500원	192,000원



HURAM
Medi Tour Travel Company
www.huramkorea.com

미국문의 617-955-9112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 huramkorea

기자 모집

보스톤코리아에서 기사를 찾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성실한 자세를 갖고 있으면 환영합니다.
작은 커뮤니티지만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신을 믿는 그런 기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보스톤 **코리아** 에서
풀타임, 파트타임
취재 전문기자를
찾습니다



정규 기자직 : 풀타임 0명
취재전문 파트타임 0명
지원 자격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자
한국어 능통 및 영어 가능자
기자 경험자 우대
근무조건 : 샐러리 베이스, 편리한 근무시간.
(필요시 비자 지원 가능)

전형과정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지원서류: 이력서(영문 또는 한글), 자기소개서
관심 분야: 250 단어(워드 기준) 내외 기사작성 본
모집마감 : 수시 모집
면접시 지참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수습기간 : 4개월 (수습기간은 기본 연봉의 50%)
보수 : 추후협상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 소개서, 기사작성본을
editor@bostonkorea.com으로 보내주세요



성기주 변호사 칼럼

2016년 H-1B 주의사항 part 1

이민국은 최근 H-1B 시즌에 맞춰 내부적으로 활용되는 직원교육용 자료, 승인/거부 조건, 이메일, 최근 정책 등에 관한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아래는 몇가지 주의하실 사항들입니다.

학위증명서

H-1B의 자격조건 중 하나는 Specialty Occupation이라는 position을 위한 신청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학사이상을 요구하는 position 또는 수년간의 경력을 통해서만 이행할 수 있는 position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위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 학위는 꼭 미국학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외국학위일 경우 그 학위가 미국의 학위와 동일한 학위(Foreign Degree Equivalency)라는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몇몇 기관에 의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현재 이민국이 공인한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사설단체들입니다. 따라서, 이민국 공인이라고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기관은 사실이 아니니 피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H-1B는 한번 신청에 최대 3년의 유효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H-1B 신청

서에 LCA Certificate을 반드시 동봉하여야 합니다. 유의하여야 할 점은 H-1B 신청서에 요구하는 유효기간이 LCA Certificate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같거나 적어도 그 안에 들어 가야 합니다. 그 기간보다 길면 안됩니다. 처음 신청하는 쿼터에 적용되는 신청서의 경우, 혼잡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LCA가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신청됩니다. 따라서 4월1일을 기준으로 신청되는 H-1B 신청서와 며칠에서 몇주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반드시 신청 전 LCA와 H-1B 신청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날짜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3 to H-1B

H3 신분으로 H-1B 신청을 막는 법률은 현재 없습니다. 단, H3의 목적이 trainee이기 때문에 H-1B를 신청할 때의 position과 연관성 등이 중요합니다. H-1B 신청할 당시 신청자의 신분이 H3면 이민국은 H3 신청서를 조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H3의 조건과 H-1B의 조건 등에 대한 상황 설명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권

원칙적으로 H-1B를 신청할 당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여권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여권 사본이 없

다고 바로 신청서를 기각하지는 않고 추가서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종종 군대문제로 여권 연장이 불가능한 분들이 있고 여권 갱신이 당분간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자료 요청서에 대한 응답에 자세한 상황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단지 유효한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만으로 H-1B를 기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OPT 신분자

H-1B 신청시 신분이 OPT(F-1)인 경우, 이민국은 OPT 조건을 충족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아래는 몇가지 중요한점들 사항입니다.

- OPT는 졸업일(또는 completion of studies)를 기준으로 90일 이전 또는 60일 이후에 신청되어야 합니다. 단, DSO의 recommendation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승인된 OPT를 소지하고 있어도 이민국은 이러한 날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2개월짜리 OPT인 경우 최대 90일의 unemployment 기간이 허용됩니다. OPT승인 후 학교에 employment를 신고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employment에 대한 신고는 OPT승인 후 6개월 안에만 이뤄지면 됩니다.

Initial Checklist

H-1B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민국에서는 check list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 Employer에 대한 정보(처음인지, 연장인지 등)
- 신청료(H-1B는 적어도 3가지의 다른 신청료가 있습니다)
- 모든 신청서에 서명이 됐는지 여부
- LCA가 동봉됐는지, LCA가 certify됐는지 여부
- 어떤 종류의 degree인지,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동봉됐는지 여부
- 신청인의 현재 이민신분 또는 외국에 거주 여부
- 등입니다. 설사 대리인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신다 해도 적어도 위의 사항들이 다 신청서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주간 법률 칼럼 - [지적재산법] 'Intent to Use(장래 사용형)' 상표 출원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신제품 출시, 신규 서비스 개발 또는 미국 내 진출을 계획하며 미연방 상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고려 중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표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상표출원시 'Actual Use', 즉 미국 내에서 '이미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등록을 합니다. 하지만 미연방법상의 상표출원시 반드시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사용할 예정에 있거나, 사용하려고 개발 및 고려 단계에 있는 특정 상표도 출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 예로 '그 여자'라는 상표로 로션, 샴푸 등의 여성 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1-2년 내에 '그 남자'라는 남성용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하기 위한 개발 단계에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타사가 관련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것에 대비해 미리 상표출원을 하여, 실제로 남성화장품 판매를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청사가 'bona fide intention to use the

mark in commerce' 즉, 장래에 상표를 상업에 사용할 진정된 의도가 있다면 상표출원을 미리 해둘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미국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와 가까운 시일 내에 사용할 상표에 대한 상표출원 신청은 다른 형태로 진행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마크와는 달리 미래에 사용할 상표출원은 미연방 상표법 Section 1(b)에 의거한 'Intent-To-Use(장래 사용형)'로 신청이 되며, 기간과 절차가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상표와 다릅니다.

Intent-To-Use 상표출원을 위해서는 먼저 사용 예정인 상표 자체가 필요합니다. 이때 어떤 한 단어나 문자의 조합일 수 있고, 색채와 디자인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무형인 음향 또는 향기 등도 가능하며, 또는 이 여러 부분들의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남자'라는 문구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남자'를 특정 색상의 로고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또는 둘 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상표의 정의는 소비자가 각 제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사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정인 상표가 결정되면, 이 상표가 사용될 제품군 또는 서비스 군을 선택하고, 그 후 출원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이 상표를 타사가 등록 또는 출원 신청을 해놓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결정된 상표와 제품군 및 서비스 군으로 Intent-To-Use 상표출원을 신청하면 미 특허상표청(USPTO)에서 먼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통과되면 Official Gazette에 30일 동안 공표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삼자에게 이 상표의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을 시 미 특허상표청은 상표출원 후 사용승낙 'Notice of Allowance'을 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상표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상표등록증을 받게 되지만 Intent-To-Use 상표출원은 사용승낙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승낙을 받은 후 6개월에 내에 '사용을 시작했다'라는 서면을 제출하며 상표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용승낙 후 6개월 내에 사용을 시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6개월마다 여러 차례 연장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표권은 현재 소규모 회사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귀중한 자산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신청 시기와 방법이 상표 및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표등록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mail@songlawfirm.com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구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제7탄

휴람 특별가 이벤트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상담 및 문의

환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케어센터,
보스톤규리아

T. 617-955-9112

40대 50대도 가능한
라식라섹!!!
지금까지 미룬 라식수술의
기회가 다시 찾아
왔습니다.

1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1시간 정도)

기본검진검사, 백내장, 녹내장, A&P/B&P 초음파검사, 안저촬영검사, 세극등 수경에 검사

~~25~~ 만원 → **20** 만원

2

백내장 수술 (단안 : 근시 + 원시 + 백내장 동시교정)

~~150~~ 만원 → **109** 만원 (안 종합검진 포함, 진료비 별도)

3

4060 노안 라식라섹 수술 (양안)

~~200~~ 만원 → **150** 만원 (안 종합검진 포함)

4

2030 라식라섹

130 만원 (DNA(10만원 상당), 안 종합검진 포함)

※ 수술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안 라식라섹은 당일 수술 가능합니다.
※ 수술에 관련된 약값은 개인부담이며, 안 종합검진 진료료 처방비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이 필요한 경우?



육아와 업무로
라식기회를
놓쳤다면...

20~30대 연령대까지
수술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레이저를 이용
한 노안교정이 가능합니다.



안경과 돋보기
사용이
불편한 경우

책과 신문, 핸드폰 등을
돋보기로 통해 보아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드립니다.



친구보다
노안이 빨리
온 경우

나도 모르게 온 눈의
노화현상을
개선해 드립니다.



백내장과 함께
노안 교정을
원하실 경우

노안과 백내장이 함께 온 경우
[렌즈삽입수술]을 통하여 백내장
을 치료하고 노안도 개선 할 수
있는 수술방법입니다.

환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케어센터,
보스톤규리아

T. 617-955-9112



해의외로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com.kr / www.huramkorea.com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앞선: 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제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틀, 런드로맷(Laundromat) 상점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제
합성 리스텔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런드로맷 연매상 \$190,000 + 100% 주인부재 중 운영 좋은 위치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보스톤 북쪽 일식당 풀 비어/와인 리커 면허증, 연매상 \$600,000 매매가 \$200,000

드롭 보스톤 북쪽 연매상 \$100,000 매매가격 \$35,000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260,000 부유한 동네

메인 포틀랜드 컨비니언스, 연매상 \$700,000 좋은 위치, 변화한 플라자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톤 북쪽 식당, 아침/점심 연매상 \$290,000+ 1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보스톤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톤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네일살롱 캠브리지 연매상 \$190,000 매매가격 59,000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여가활동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미 프로그램

SAT 1, 2/AP 수업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중심 수업
상시 참여및 주말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개인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겨울방학 단기집중 프로그램

기간: 12월18(토)~31(목) 12일간
(12월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은 휴강)

1. SAT I class(old, new)
- 각 파트별 균형잡힌 시간배분
- 실력있는 강사진
- 실전문제 풀이중심(old)
-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new)

2. SAT II Subject test class
Math IC, Chemistry, Biology, Physics

3. AP 전과목 및 선행학습을 위한
개입수업

2017년도 College Process 모집

대상: 현 11학년(Junior)

모집기간: 2016년 2월말까지
-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한 정확한 컨설팅
- 체계적인 계획에 맞춘 빈틈없는 일처리

각종 경시대회준비

수학경시준비(AMC/AIME)
외국어 경시준비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생물, 물리, 화학)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